

# 리아호나



가정의 밤에서 가족을  
강화함, 32쪽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8쪽

나의 집에 사랑이, 친12쪽



**고** 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가정은  
미덕의 요람이며, 성격이 형성되고 습관이  
확립되는 곳입니다. 가정의 밤은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기회입니다.”, “악을 반대함”, 2쪽과 “가정의 밤  
제언함”, 3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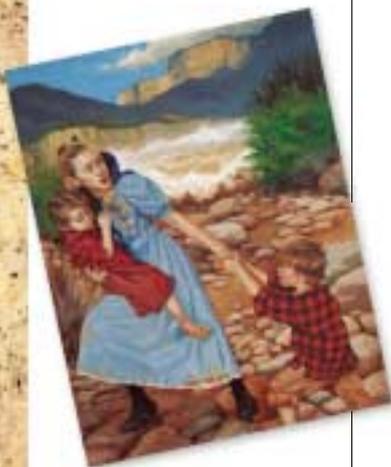
# 리아호나



표지  
앞: 모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지, 뒤: 모델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8쪽 참조

##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악을 반대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20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익명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관대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 26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침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32 가정의 밤 제언함
- 36 사술의 고리 에바 프라이
- 38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둠  
마리나 미하일로프스카야와 벤자민 게인즈
- 42 말일성도의 소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천사들 매리 바트쉬  
기도할 용기 달네이 데 아순사웅 데 카스트로  
아가보는 어때요? 에릭 헨더샷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 클라우디아 올란다 오르티스 에레라
- 48 애독자 편지

## 청소년

- 7 진실로 집 없는 자가 아니었다 로우카스 소아레스 노브레
- 8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13 포스터: 여러분의 생각을 고양시키십시오
- 14 이제 내가 이해하노니 파비오 엔리케 엔 다 실바
- 16 말일에 부름 받은 최초의 선교사 라이안 카
- 30 은사와 인도 호르헤 엘 델 카스티요 장로
- 47 알고 계십니까?

친6쪽 "물고기 통" 참조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보물 지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제가 하겠습니다 쉐리 이 윌슨
- 친6 물고기 통 젠스 크리스토퍼슨
- 친9 심심풀이
- 친10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봉사하라는 부름
- 친12 포스터 기사: 나의 집에 사랑이
- 친14 친구 사귀기: 하와이, 이와 비치의 샐-레이 카마우 리차드 엠 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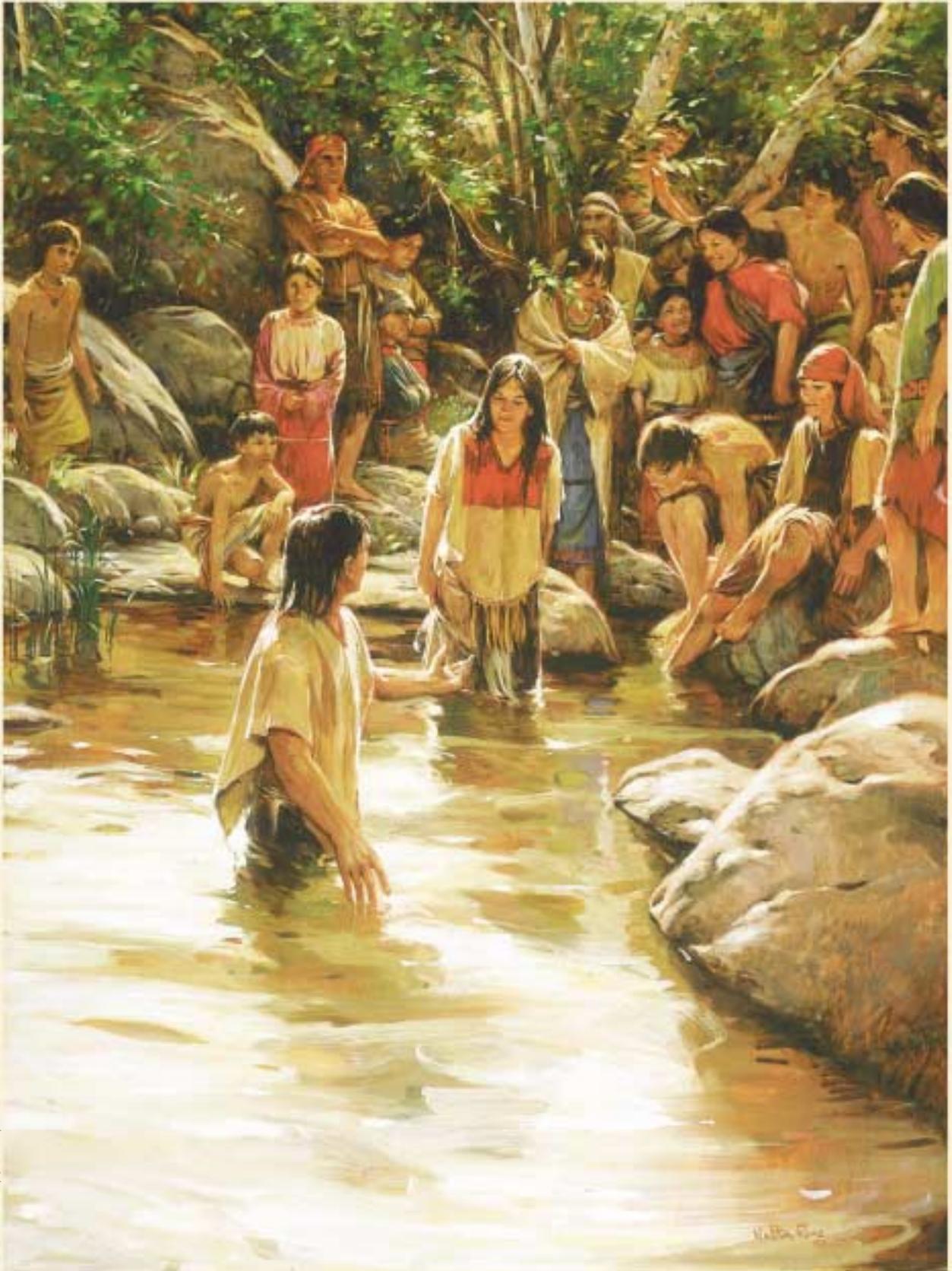


그림: 물몬의 손으로에서, © 월터 레인, 복서 금지

그림: 월터 레인,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 오

침례에 관해 배우자마자 엘마 백성이 “외치기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던 바라 ...  
그 수가 이백 넷이요, 물몬의 물에 침례 받은 자들은”(모사이야서 18:11, 16)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테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크, 제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린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사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제니퍼 앨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셸리 제이 오데커크, 애덤 시 윌슨, 주디스  
엘 필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도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텔, 킴벌리 웹,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엘 겸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하워드, 테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우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62호, 제 41 권, 제 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에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루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서모니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Copyrights and Permissions**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또는 전화 번호: 1-801-240-3959, 또는 이메일:**  
**cor-copyright@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4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침”, 26쪽: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구세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던지신 세 가지 형태의 질문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질문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을 다음 번 가정의  
밤 공과에서 다루어 본다. 이런 노력이  
가족들의 공과 참여를 높이는지 살펴본다.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 46쪽:  
죽음은 어느 가족이나 한두 번쯤은 겪는  
일이다. 여러분이 토론을 해 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죽음의 목적, 죽음의 시기,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에 관해  
토론한다.

“게시가 있는 8가지 이유”, 8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게시의 여덟 가지  
목적용 열거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있었던 게시의 이런 목적들에 관한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부탁한다.

“말일에 부름 받은 최초의 선교사”,  
16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동생인  
사무엘 스미스는 몰몬경을 선교 도구로  
활용했다. 그가 두고 간 몰몬경 한 권으로  
인해, 훗날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이 된

브리감 영과 대관장단 제1보좌가 된  
히버 시 킴블이 결국 교회 회원이  
되었다. 몰몬경의 권세에 관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스스로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간증을 얻도록  
격려한다. 사무엘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몰몬경을 나눌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집에 사랑이”, 친12쪽: 이 기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을 세우고 행함과  
봉사를 통해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활용하여 가정의 밤에서 이 원리를  
강화시킨다.”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봉사, 42
가르침, 1, 26, 32	부모의 역할, 2
가정 복음 교육, 6	사랑, 25, 친4, 친12
가정의 밤, 1, 2, 32	선교 사업, 16, 42, 친10
가족, 2, 32, 36, 38, 42, 친4, 친12, 친14	성신, 8, 30, 친6
간증, 14	순종, 친6
개종, 7, 14, 42	역경, 42
견디어 냄, 36	예수 그리스도, 25, 26
경전 공부, 42	예언자, 47, 친10
게시, 8, 30	용기, 2, 42
관대함, 25	유산, 친2
교회사, 16, 47	일, 친4, 친12
구원의 계획, 42	자제, 2, 13
기도, 42	죽음, 42
덕성, 13	준비, 친2
동성애에 매력을 느끼는	지혜의 말씀, 30
감정, 20	초등회, 친4
동정심, 20	표준, 2
몰몬경, 14, 16	행복, 친2
방문 교육, 25	회개, 2, 20
범세계적인 교회, 38, 친14	



# 악을 반대함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어**느 날 저녁에 조간 신문을 집어든 저는 전에는 읽어 본 적이 없는 그 신문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 때 제 시선은 영화 광고에 멈추었습니다. 그 광고들 중에서 지극히 많은 것들이 폭력과 부도덕한 성을 부추기는 퇴폐적인 것들을 공공연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함으로 가서 다음주 텔레비전 방영 일정이 담긴 조그만 잡지를 찾았는데, 그 잡지의 표제목에도 영화 내용과 같은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뉴스 잡지의 특별호는 늘어나는 범죄율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잡지 기사는 늘어가는 경찰력과 보다 큰 감옥에 들어가는 수십 억 달러의 추가 예산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외설물의 홍수, 성과 폭력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북아메리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기타 많은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우울한 상황은 사회의 핵심 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약이 법률 제정과 법원의 의견 아래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소위

개인적인 일에서의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쓰디쓴 열매는 퇴폐적인 습관과 행위에 대한 예측이며 그것은 오직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 예언자는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런 과정을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이서 28:21)

한편으로는 이 나라와 다른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이나 있다는 점이 안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합니다. 자녀들은 절제, 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 안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선한 사람들의 힘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잠자코 있을 필요도 없고 더러움과 폭력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두거나 절망하여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안심입니다. 제가 언급한 충분한 수의 좋은 사람들의 힘이 현재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힘에 보태진다면 높고 위협적인 밀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에 반대하는 도전이야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시민으로서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그 소리가 새소리처럼 작은 음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느낌에 담긴 힘과 우리의 노력에 담긴 진지함을 알게 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악의 밀물에 반대하는 우리의 노력을 시작하는 데 관련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혁은 자신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 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는 우리 신앙의 기본 조항입니다.

우리가 유덕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유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우리 생활의 모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다 높은 곳에 서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내면에 심어지는 미덕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신성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훌륭하고 신성한 미덕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천박하고 음탕한 요소들을 물리치며 자신을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엘머는 아들 힐라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엘머서 37:47)고 말했습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서  
이 놀라운 선언, 곧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마태복음 5:8)이라는 선언을 포함시키셨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 현명한 사람이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부정직한 사람이 하나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설득력 있는 이런 권고를 자신의 등장 인물 중 하나의 입을 빌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것, 그렇게 하면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타인에게도 충실하게 마련이야”<sup>1</sup>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고양시키고, 행동을 수련하여 미덕의 모범을 보이고, 언어를 통제하여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들만을 말하라는 목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에 관한 둘째 사항은 보다 나은 내일은 보다 나은 세대의 훈련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좀더 효과적인 일을 행할 책임을 부모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미덕의 요람이며, 성격이 형성되고 습관이 확립되는 곳입니다. 가정의 밤은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잡지와 신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읽겠다는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십시오. 그들이 아주 어릴 때, 그 내용에 담긴 미덕으로 인해 불후의 명작이 된 훌륭한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좋은 책을 접하도록 하십시오. 단지 몇 권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훌륭한 마음을 키워 주었던 책을 여러분의 집 어디엔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둡시다.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런 장소를 마련합시다.

그들의 생각을 더 고상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잡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잡지를 집안에 있게 합시다. 자녀들이 도처에서 찾을 수 있는 저질의 광고와

글에 노출되지 않고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가족 신문을 읽게 합시다. 지역에서 좋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면,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을 고려해 봅시다. 여러분의 진정한 후원이 이런 형태의

오락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의사 소통 수단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확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슬픈 사실은 더 많은 자유를 외치고, 외설물을 팔고 탐독하며, 음탕한 표현을 조장하고 즐기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다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우리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될 때까지

음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그 소리가 새소리처럼 작은 음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느낌에 담긴 힘과 우리의 노력에 담긴 진지함을 알게 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종종 잘 씌어진 편지와 우체국 소인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결과가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과의 조용한 대화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이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리와 성약 64:33~34)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조례, 법령,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 즉 지역, 주, 그리고 국가의 관리들, 학교 관리자들과 같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물론 문을 팽 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1783년에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던 에드먼드 버크는 인기 없는 대의를 주장하는 사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뜻이 그가 가는 길 주위에 널려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동기에 대해 중상 모략을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비난이 모든 참된 영광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비방과 욕설이 승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 기억할 것입니다.”<sup>2</sup>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수단인 텔레비전을 활용하십시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선택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적절한 가족 오락을 편성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 혹은 나쁜 것에 대한 여러분의 불만에 관해 알고록 합시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얻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으며,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일이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음악이 있게 합시다. 카세트 테이프나 CD에 녹음된 음악을 가지고 있는 십대 청소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좀더 좋은 음악을 듣게 합시다. 그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십시오. 좋은 음악이 그 자체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감사를 표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음악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에 관한 셋째 사항은 대중적인 정서의 형성은 몇 마디의 진지한 음성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비조로 소리치거나 입법자들의 면전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막중한



일어났던 자신의 기적적인 개종에 관해 말하며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사도행전 26:16)고 그에게 명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진리와 선과 품위와 미덕을 위해 음성을 높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에 관한 넷째 사항은 싸우기 위한 힘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모든 참된 힘의 근원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0~13)

악의 밑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말로 홍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 악의 방대한 크기에 관해 별로 알지 못합니다. 수조 원의 돈이 외설물을 쏟아 붓는 사람들, 음탕함을 파는 사람들, 도착과 성과 폭력을 다루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에 대항하여 일어서고 또 이러한 미덕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인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신앙과 용기를 주십니다. 과거에 이러한 미덕들이 실행되었을 때 사람들과 나라가 강해졌고, 무시되었을 때 쇠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선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에게 합류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주

1. 햄릿, 제1막, 3장, 78~80행.
2. 존 에프 케네디, 용기 있는 사람들, vi쪽에서 인용.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1. 가족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건전한 오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그 주제에 관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가?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오락을 권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2. 힝클리 대관장이 햄릿에서 들려준 인용구, 즉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것 ...”을 읽고 난 다음에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의 뒷부분, 즉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로 시작되는 부분을 읽는다. 우리가 유덕한 생각을 품고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라는 성구가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명심할 때, 어떻게 자신에게 참되게 되는지를 가족들에게 묻는다.

3. 에드먼드 버크의 인용문을 읽는다. 용기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한다. 의로운 대업을 위해 음성을 높이는 것의 장점을 강조한다.

4. 사회에서 악에 대항하는 싸움을 지금 시작하라는 힝클리 대관장의 요청에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언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아니었다

한 회원의 선행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집을 찾았다.

로우카스 소아레스 노브레

**여**

두살 때 아버지와 여섯 자녀를 남겨 두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학년까지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학업을 끝내야 한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열일곱 살 때 브라질 산타렘시로 이사를 가자 그 기회가 찾아왔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던 몇몇 사람들과 내가 같이 생활하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며 나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을 하여 내게 필요한 교재를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

첫해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내게 그들의 교회에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거둬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3년이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자 하루는 내게 다른 거처를 찾아보라고 그들이 말했다. 나는 낙심했다.

다음날 나는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나는 근처에 살고 있던 새어머니의 친구를 기억해 내고는 그 분께 얘기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 호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짐을 챙겨 와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다. 그녀의 친절함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교회 선교사들이 점심을 먹으러 올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녀의 착한 심성으로 인해 그녀의 종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점심을 먹는 동안 나는 릭스 장로와 마르시오 장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는 토론할 시간을 정했다. 다음날 약속 시간까지 물문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토론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선교사들은 내가 마음을 연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동안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선교사들은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3주 후에 나는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 후에 나는 브라질 쿠리티바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선교사들이 나를 위해 했던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사랑한다.

내 결정으로 인해 거처를 잃게 되었던 상황에서도 나는 그 교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집과 그리스도를 닮은 한 친구를 만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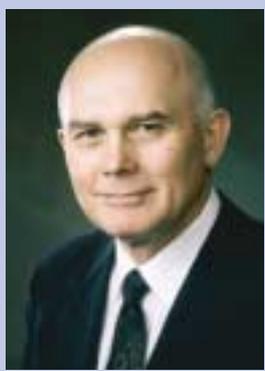
로우카스 소아레스 노브레는 브라질 산타렘 파라 지방부 터파조스 지부의 회원이다.



신화: 모버트 에이 맥케이

# 8 계시가 있는 가지 이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계시가  
실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일 적에 제 할머니, 채스터 올슨 해리스는 유타 주 캐슬 데일의 집 근처에 있는 마른 강바닥에서 놀고 있는 몇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강바닥에 있는 어린이들을 강둑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지시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비가 온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어떤 이유도 없었기에 그녀는 그들을 계속해서 놀게 했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그 때서야 그녀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으며, 급히 어린이들을 불러모아 강둑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들이 강둑에 이르렀을 때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불어난 거대한 강물이 협곡을 휩쓸고 내려와 어린이들이 놀고 있던 곳을 노도같이 지나갔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 소통입니다. 그것은 많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요셉 스미스 같은 몇몇 예언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과 개인적인 의사 소통을 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1862~1933)가 묘사했던 것처럼, 어떤 계시는 “잠잘 때는 꿈으로 깨어 있을 때는 시현으로” 옵니다.<sup>1</sup>

더욱 친근한 형태의 계시 또는 영감은 마음에 전해지는 말이나 생각(이노스 1:10; 교리와 성약 8:2~3 참조), 갑작스런 깨달음(교리와 성약 6:14~15 참조), 제안된 행동 과정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 또는 예술 작품에서처럼 영감에 찬 공연으로도 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지적한 대로, “영감은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옵니다.”<sup>2</sup>

## 계시의 목적

여러분의 경험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계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의사 소통이 실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1814~1901)은 “모든 말일성도의 커다란

행동을 촉구하는 계시가  
 아니었다면 어린 소녀였던  
 제 할머니와 그 분이  
 돌보고 있던 어린이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특권은 ... 매일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영의  
 나타내심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sup>3</sup>

다음과 같은 계시의 여덟 가지 목적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계시나 영감의 정도를 인식하고,  
 또 장차 좀더 자주 사용하기 위해  
 이런 영적 은사를 계발하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1.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복음이  
 참되다고 확인해 주는 간증이나  
 성신의 증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시인했을 때,  
 구세주께서는 그를 불러  
 축복하셨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

2. **예언은 계시의 또다른 목적  
 또는 기능입니다.**

성신의 영향 아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한계  
 내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영감을  
 받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 스미스가  
 남북 전쟁에 관해 예언을  
 하고(교리와 성약 87편 참조),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서 강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처럼 교회를 위해 예언을

합니다.<sup>4</sup> 예언은 축복사 부름의 일부입니다. 우리  
 각자 또한 우리가 받게 될 부름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장래의 사건들을 밝혀 주는 예언적 계시를



받게 되는 특권을 때때로 갖습니다.

### 3. 계시의 또다른 목적은 **위안**입니다.

그런 계시는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여러 달을 보낸 후, 그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외치며 자신과 박해 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같은 계시에서 주님은 어떤 비극이나 불의가 예언자에게 일어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7)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위안의 계시는 또한 말로 표현된 것이든 또는 단순히 축복과 관련되어 전해진 느낌이든 어느 것으로나 신권의 축복과 연관되어 올 수 있습니다.

또다른 형태의 위로의 계시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확신입니다. 이 계시는 사람이 회개의 모든 단계를 완수했을 때 오는 것으로서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말을 들으셨으며,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 4. 계시의 네 번째 목적 또는 기능인 **고양**시킴은 위안의 느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때때로 절망으로부터, 나쁜 예감이나 부적절하다는 느낌으로부터, 또는 영적 평범함의 단계로부터 벗어나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악에 대항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돕기 때문에 저는 경전을 읽거나 건전한 음악, 예술이나 문학을 즐기므로써 전해지는 고양되는 느낌을 계시가 갖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 5. 계시의 다섯 번째 목적은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축복사가 축복을 줄 때나 성신의 영향 아래 말이나 설교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 전해지는 영감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들의 음성을 높여 그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라고







**우리가 영에 따라  
생활하고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인도를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복리에 중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형태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제 할머니께서 돌보고 있던 어린이들과 할머니는 강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 **계시를 받지 못할 때**

마치기 전에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시에 관련된 책임”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책임 영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할 때, 예를 들어 전체 교회를 인도하는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감리 권능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은 그런 계시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이나 계시를 구할 때 항상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계시를 더디 받기도 하며, 어떤 때는 우리의 판단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행동에서, 모든 중요한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경험을 하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좌절될 것입니다. 자립심과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에서조차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시에 의한 인도 없이 내렸어야 할 결정에 관해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수용되거나 수용되지 않아도 괜찮을 여러 대안들 중에서의 선택에 대한 인도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님의 영은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는 계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 선택이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따라 생활하고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인도를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복리에 중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계시가 실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되고, 자발적이 되며, 계시의 이런 원리 속에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1981년 9월 29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주신 영적 말씀에서: 성도의 빛, 1983년 12월호

#### **주**

1. 신앙개조, 208쪽.
2. “기도와 응답”,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31쪽.
3. Conference Report, 1899년 4월, 52쪽.
4. *History of the Church*, 5:85 참조.
5. “선택의지나? 영감이나?”, 성도의 빛, 1978년 5월호, 32, 35쪽.

# 여러분의 생각을 고양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빌립보서 4:8 참조)

# 이제 내가 이해하노니

파비오 엔리케 엔 다 실바

**19** 95년 6월에 교회에 관해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나는 열세 살이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해 알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그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적절한 때가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몇몇 친구들과 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두 명이 우리 앞을 지나갔다. 우리 대화의 주제가 종교로 바뀌었다. 사촌 하나가 현재 선교사들에게서 토론 내용을 듣고 있으며, 그것이 굉장히 흥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몰몬경과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관해 말했다. 그녀가 “몰몬경”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흥미를 느껴 그 책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희 중에 그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 우리 집에 와. 선교사들이 오거든. 선교사들에게서 그 책을 얻을 수 있어.” 형과 나는 그 책을 정말로 얻고 싶었다.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토론 내용을 듣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했다. 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고, 그 선교사들이

몰몬경에 관해  
들었을 때,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것에 관해  
기도했을 때, 영은  
그 책이 참된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말하는 것이 참된다고 생각했다. 영이 그들의 말이 참된다고 내게 증거했다. 그 날 저녁 형과 나는 몰몬경을 받았다.

그 후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 토론 내용을 우리에게도 가르쳤다. 그리고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라고 권유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러겠다고 동의했다.

첫째 날 밤에는 자기 전에 기도를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응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둘째 날에는 다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다시 한번 기도했다. 선교사들이 내게 가르친 구절,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리와 성약 9:8)라는 말을 실감하고 싶었다. 나는 기도하고 기다렸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응답을 받으리라고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은 그 달의 첫번째 일요일이었고, 우리는 교회로 갔다. 원하던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 날이었다. 공과 시간에 나는 전에 결코 느껴 보지 못했던 어떤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찬식이 시작되자, 나는 간증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했다.

형과 나는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도 참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기 위해 이런 간증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교회에 가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교회와 세미나리에 충실하게 참석했다. 나도 학교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시달림을 받았다. 어려웠지만 이런 경험은 내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다.

일곱 달 후에 선교사는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금식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우리가 금식을 끝냈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었다. 너무나 기쁘게도 어머니는 형과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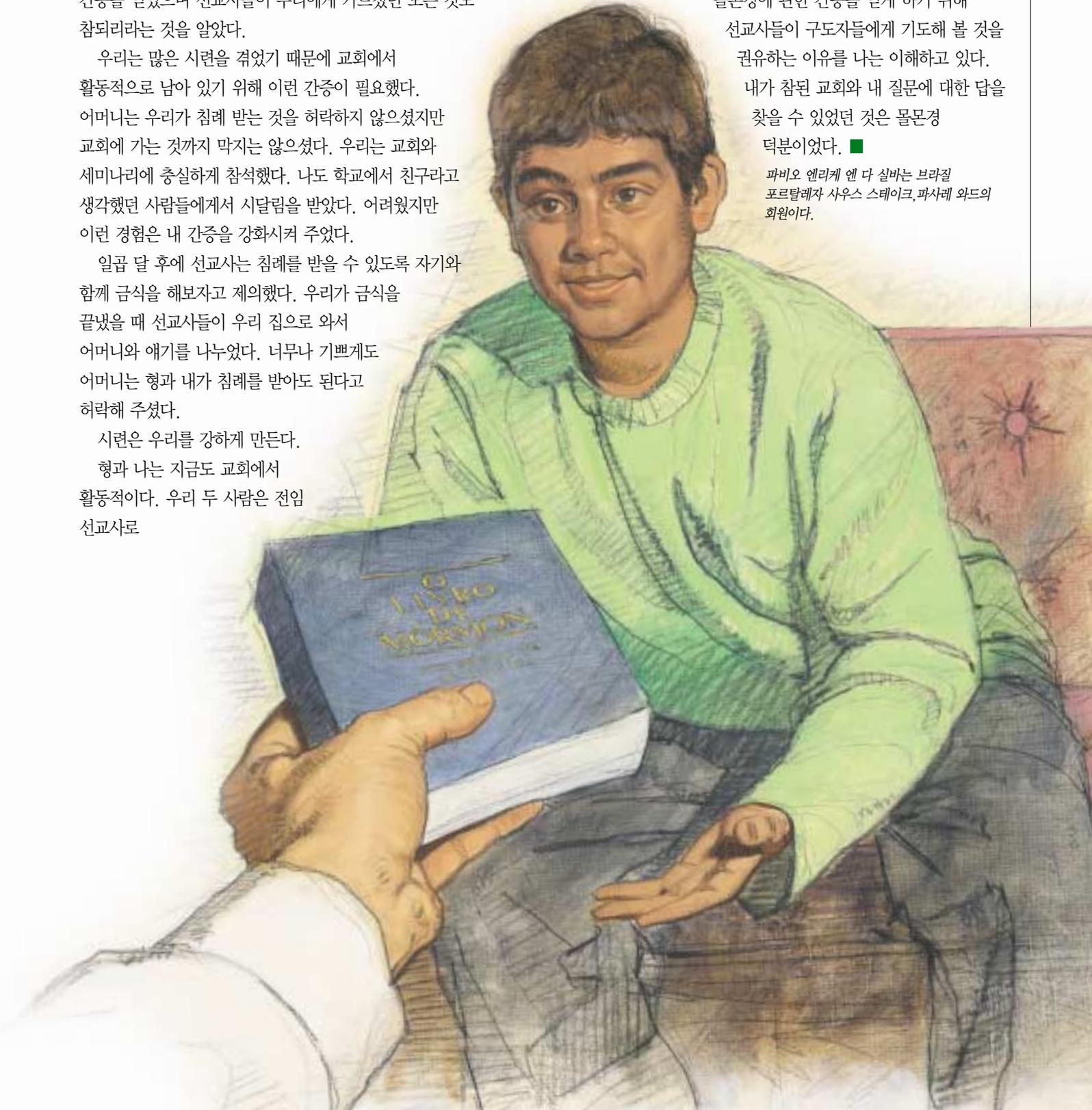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형과 나는 지금도 교회에서 활동적이다. 우리 두 사람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몰몬경을 읽을 때, 교회에 갈 때, 종교 교육원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내 간증은 확고해진다.

몰몬경에 관한 간증을 얻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구도자들에게 기도해 볼 것을 권유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 내가 참된 교회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몰몬경 덕분이었다. ■

*파비오 엔리케 엔 다 실바는 브라질 포르탈레자 사우스 스테이크, 파사레 와드의 회원이다.*



# 말일에 부름 받은 최초의 선교사



말일에 부름 받은 최초의 선교사는 전도할 당시 그것을 몰랐지만 그의 노력은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 중 두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이언 카  
교회 잡지

**동** 반자도, 선교사 훈련원도, 가르쳐야 할 선교사 토론도 없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간증과 영광의 물몬경뿐일 때 혼자 선교사로 나가야 했다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였던 사무엘 스미스가 그랬다. 예언자 요셉의 동생이었던 사무엘이 첫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막 인쇄를 끝낸 물몬경을 가득 채운 배낭 하나만을 메고, 뉴욕 주 팔마이이라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녔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 스미스 가족은 성경을 공부했으며 가족 기도를 드렸다. 십대 시절에 사무엘은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면 그는 가족과 함께 모여 요셉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sup>1</sup>

사무엘은 스물한 살이 되자 그의 형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몬경을 번역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갔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며칠 전인 1829년 5월 29일에 요셉과 올리버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새로 주어진 권능으로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하모니에서 요셉은 사무엘에게 번역된 물몬경의 일부를 보여 주었으며 “이제 곧 충만하게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요셉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은 “이 사실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숲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고 열렬한 기도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몸소 계시를 받았다.”<sup>2</sup>

1829년 5월 25일에 사무엘은 침례를 받았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과 올리버에 이어 침례 의식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이 되었다. 후에 사무엘은 금판을 살펴본 여덟 목격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듬해 봄인 1830년 4월 6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는 최초의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1830년 6월에 요셉은 사무엘을 교회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성별했다.

## 선교 지역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한 첫날 사무엘은

40킬로미터를 걸었다. 네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몰몬경을 사려 하지 않았다. 허기지고, 지치고, 낙심한 그는 그 날 밤 여인숙에 묵었다. 사무엘은 여인숙 주인에게 몰몬경을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소. 그 책은 어디서 난 책이요?” 하고 여인숙 주인이 물었다.

“땅에 묻혔던 금판 중 일부를 우리 형이 번역한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이 설명했다.



삽화: 로버트 디 배럿



1830년에 예언자 요셉의 동생 사무엘은 뉴욕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하여 로다 그린(브리감 영의 누이)에게 최근에 인쇄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이런 거짓말쟁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그 책을 가지고는 잠시도 내 집에 있을 수 없어.”라고 여인숙 주인이 말했다. 그리하여 최초의 교회 선교사는 그 날 밤을 사과나무 아래, 차갑고 축축한 땅에서 잠을 자야 했다.<sup>3</sup>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그에게 아침을 준 한 가난한 미망인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다. 그런 다음 13킬로미터를 걸어가 존 그린이라는 감리교 목사에게 몰몬경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받았다. 그린 목사의 부인은 브리감 영의 누이였으나 브리감은 아직 교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무엘이 2주 후에 다시 그린 목사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목사는 아직 몰몬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몇 달 후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린 목사는 집에 없었으나 그린 부인은 사무엘에게 그 책을 읽었으며 그 책을 읽고 “기뻐다.”고 했다. 영은 사무엘에게 그 책을

그녀에게 두고 가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그녀에게 “책을 가장 유익하게 읽는 방법은 책을 읽고 나서 읽은 것에 대해 참된 간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sup>

나중에 그린 부인은 남편에게도 몰몬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책을 읽었으며, 그들은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았다.

#### 미래의 예언자를 개증시킴

1830년에 사무엘은 브리감 영의 형제이며 감리교 목사인 피네하스 영에게 몰몬경을 팔았다. 피네하스가 처음 사무엘을 만난 것은 순회 전도를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저녁을 먹기 위해 한 농장에 멈추었다. 그가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을 때, 남루한 복장을 한, 한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책을 손에 든 젊은이는 피네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 몰몬경으로의 개종

“몰몬경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

“덧붙여, 이 영감에 찬 책으로  
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몰몬경으로 개종하는  
것은 신성하고 예언적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의] 요셉 스미스의  
부름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신성한  
증거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The Book of  
Mormon: The Heart of Missionary Proselyting”(“몰몬경:  
선교사 전도의 핵심”), *Ensign*, 2002년 9월호, 14쪽.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무슨 책이요?”라고 피네하스가  
물었다.

“몰몬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판  
성경이라고 부르지요.”

“아,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인가요?”라고 피네하스가 물었다.

젊은이는 책을 펴서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의 증언을 보여 주며  
말했다. “여기 이 책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피네하스는 그들의 증언을 읽었다.  
피네하스가 책을 읽고 젊은이를  
쳐다보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도록  
간구하신다면,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피네하스는 책을 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젊은이의 이름을 물었다.

“제 이름은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입니다.”

피네하스는 책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다.

“그럼 당신은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이군요.”

사무엘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신의 권세로 번역되었으며 제 형 요셉 스미스 이세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라는 것을 압니다.”

집에 돌아온 피네하스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기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소. 계시라고 말하오만 나는 그 안에 있는 잘못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세상에 알리겠소.”

약속대로 그는 2주 동안 두 번을 읽었다. 그러나 잘못을  
찾아내는 대신 그는 그 책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일요일에, 회중이 그에게 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10분  
동안 그 책을 변호하여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장시간 동안 그 책의 중요성을  
말했다. ... 그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설교를

마쳤다.”<sup>5</sup>

그 해 여름에 브리감 영을 포함하여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김볼  
가족이 몰몬경을 읽었으며 그것을 믿게  
되었다.

## 여러분의 배낭을 채우십시오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못했으며 단지 몇 권의  
몰몬경을 전했을 뿐이었다. 사무엘은  
그가 전한 책들 가운데 두 권이  
1844년부터 1877년까지 교회를  
감리한 브리감 영과, 1835년부터  
1868년까지 사도로 봉사한 히버 시  
김볼을 포함하여 많은 충실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배낭에  
몰몬경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과 함께 그것을 전할 수 있다.

사무엘의 짧은 선교 사업이 보여 준

것처럼, 여러분은 누가 몰몬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로나이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이 몰몬경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그들에게]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사 10:4) ■

## 주

1.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편집, Preston Nibley(1958), 82쪽.
2. *History of the Church*, 1:44.
3. 사무엘 스미스의 최초의 선교사업에 관한 글은 *History of Joseph Smith*, 168~171, 187~188에서 옮김.
4. *History of Joseph Smith*, 187쪽.
5. 피네하스 영의 경험에 관한 글은 S. Dilworth Young, “Here Is Brigham ...”(1964), 50~52에서 옮김.



다 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  
나는 와드의  
다른 회원들이 나를 환영해  
줄지 걱정이 되었다.

#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우정과 동정심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다.

익명

구 약전서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남편의 다른 부인에게서 조롱을 당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사무엘상 1:6, 10) 이 구절에 있는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말은 분노나 냉소가 아니라  
슬픔과 비탄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에도 가족 생활의 기쁨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생식 불능 때문이 아니며 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동성에게 느끼는 성적 매력 때문에 아직 자신의 가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써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가진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들은 동성애가 선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추세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혹하는 것에 따라 이름이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게이라는 꼬리표를 피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 인내를 통해 영화롭게 됨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갈구하는 것, 즉 결혼 관계에서 찾게 되는 동반 관계와 완전함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 없이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가져오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나는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포근한 팔 속에서 동반자 관계를 보상 받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린도후서 12:9)라는 구세주의 말씀이 심오하고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성에게 끌리는 성적 매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를 수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중성이다. 나는 실망에 빠질 때 주님이 교리와 성약 58편 2~3절에서 하신 약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란 중에서도 충실한 자는 저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리라.

“너희는 이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는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견디어 내는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필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그것은 아마도 친구, 가족, 그리고 교회 회원들의 더 큰 이해와 연민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 선택은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데 있다

동성에게 끌리는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남에게 알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내 경우에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상대는 주님과 감독님,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이해심 있는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뿐이다.

그러나, 때로 가족이나 와드나 지부 회원들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것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울리면서 한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의 괴로움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나 험담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의 분명한 책임”이다.<sup>1</sup>

우리에게는 종종 자신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상 성격자”로 비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진리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어느 저자가 말했듯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간증에 상충되는 고통스런 일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는가?

... 동성에 대한 욕구는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 대단히 힘든 도전이고 쉽사리 선택되지 않는 문제이다. 시험은 용감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sup>2</sup> 우리의 선택은 유혹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다.

선택의지의 교리는 생물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원인 때문에 동성애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세상적인 시도와는 상충된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변명을 대신할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sup>3</sup>

주님이 수사학적으로 분명히 질문하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세기 18:14) 라는 말씀은 우리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회개와 더불어 오는 두려움

동성애적인 행동을 처음 회개하기로 했을 때, 나는 감독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두려웠다. 혐오스런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화를 낼까? 이미 죄를 진 후보다 더 좋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이 걱정되어, 나는 여러 달 동안 회개를 미루었다. 드디어 감독님과 만났을 때, 그는 더 큰 죄의식을 갖게 하는 대신, 앨마가 권유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했다.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앨마서 5:26) 나의 고백에 대한 감독님의 조용하고 영적인 반응은 내가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분에게 다가가기 쉽게 해 주었다. 그 분의 그리스도다운 접근은 내가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감독님에게 가기 두려워했던 것만큼, 훌륭한 생활을 하고 내가 범한 것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은 교회 회원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에 합당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회로 돌아간 첫 일요일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느낌을 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와드 회원들이 사랑이 넘치는 우정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을 때 내 걱정은 가벼워질 수 있었다. 내가 저활동 회원에서 비활동 회원이 되어 생활했다면 회개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는 말일성도 친구들과 가족은 회개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오랫동안 사귀어 온 몇 명의 친구들에게 나의 고통을 털어놓고 처음으로 그런 지지를 구했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 때문에 결코 그들을 거부하지 않듯이 내 친구들도 내 약점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않았다. 만약 친구들이 나의 유혹과 잘못을 알고 내게 실망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느낌을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 대관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사랑으로 대치시킨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sup>4</sup>

내 자신의 문제로 당황하고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축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힘을 주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위로하고 고무시켰던 말씀 역시 나를 위로하고 고무시켜준다.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교리와 성약 121:9)

### 유혹은 범법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자주 자신을 돌이켜보듯이, 회개와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으로 인해 나는 다른 의로운 말일성도들처럼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성전에 가며, 성찬을 취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공과를 가르치며, 신권을 지니기에도 합당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만약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sup>5</sup>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 영성을 키우고 있다.<sup>6</sup>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 가까이 가게 해 주는 투쟁이다. 왜냐하면 승리는 전적으로 그분들을 믿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 구세주의 다음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마태복음 9:12)

어떤 사람들은 다른 유혹, 즉 술, 담배, 외설물, 도박이나 그 밖의 심각한 죄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 중대한 범법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매일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유혹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죄가 되는 행동과 부적절한 생각이나 위험성이 내포된 감수성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sup>7</sup>

나는 피상적인 고정 관념이 아니라 내가 지닌 참된 성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유혹의 본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구세주의 속죄에 의지하여 우리를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다 줄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그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 타이밍의 개별성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직면하는 가장 불편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교회 회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을 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아주 좋은 데이트 상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라는 두려운 말을 듣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과거의 부적절한 감정을 고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트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은 내가 느낄지도 모를 고통과 좌절을 악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언젠가는 동성에게

**도** **움을 주는**  
**말일성도**  
**친구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으며 내가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억제하여 데이트를 향한 미미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한다든지 데이트 상대를 골라주는 일이 없이 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은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함으로써 간단히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러한 생각을 일소했다. “결혼이 동성 연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방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 부동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sup>8</sup>

동성애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개인이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는 데 주님의 도움을 얻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 달려 있다. 그 노력은 결코 쉽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인내심이 우리 자신의 인내심을 크게 증대시켜 줄 것이다. 대중 매체가 주는 느낌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sup>9</sup>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이 일은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평생의 시험<sup>10</sup>이 될 수도 있다.

### 독신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하도록 도움

친구들과 교회 회원들이 내게 중매를 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주는 시간과 교제이다. 가정의 밤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나를 그들의 사교 모임에 받아들이는 부부들은 내가 유혹을 받거나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지탱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구세주의 권고를 모범으로 보여 주고 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47)

내가 이따금 경험하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내가 가족에 대한 교리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가족들은 그들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모사이야서 18:8)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의로운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부적절한 교제를 해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이다. 그 대신에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나의 충실함을 통해 언젠가 내가 받게 될 가족의 축복을 맛보게 해 준다.

###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의로운 친구나 가족의 구성원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감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든 혹은 그렇게 느끼고 있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유혹에 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범법을 혼동하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며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분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이해와 동정심을 갖고 있는 참된 제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결심으로 강화되고 구세주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은 마침내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느낀 기쁨과 희망으로 대치될 것이다.(사무엘상 2:1 참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생의 시험을 더 성공적으로 이겨 낼 수 있고 교회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

주

1. “동성 연애”, *성도의 빛*, 1996년 3월호, 24쪽.
2. Erin Eldridge, *Born That Way?*(1994), 33쪽.
3. *성도의 빛*, 1996년 3월호, 18쪽.
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1988), 75쪽.
5.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7쪽.
6. 닐 에이 맥스웰, “잘 견디어 내면”,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2쪽 참조; 또한 “Becoming a Disciple”, *Ensign*, 1996년 6월호, 15쪽.
7. *리아호나*, 1996년 3월호, 21쪽.
8. “Reverence and Morality”, *Ensign*, 1987년 5월호, 47쪽.
9. See, for example, Robert L. Spitzer, “Can Some Gay Men and Lesbians Change Their Sexual Orientation? 200 Participants Reporting a Change from Homosexual to Heterosexual Orientation”(로버트 엘 스피터, “일부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들은 동성애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200명의 참여자가 동성애에 대한 감정에서 이성애에 대한 감정으로 바뀌었음을 보고함.”),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03년 19월, 403~417쪽.
10. 보이드 케이 패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7쪽 참조.

## 관대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여러분은 주님의 관대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위대한 축복이 될 한 가지는 그분의 관대하심입니다. 이 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품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그분의 자녀가 계명을 지켰을 때 느끼게 되는 신성한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속하게 축복하시며 충실한 자를 영예롭게 하심을 기뻐하십니다.(교리와 성약 76:5)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사도행전 17:27; 또한 112:13 참조)하려 할 때 늘 응답해 주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심에서 나타납니다.”(If Thou Endure It Well [1996], 39)

**존 테일러 대관장(1808~1887):** “우리에게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산이 있다면, 자녀와 친구와 가정이 있다면, 진리의 빛과 영원한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시와 거룩한 신권과 더불어 그 모든 축복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참된 모든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고 온전한 모든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175~176쪽)

### 여러분은 어떻게 관대할 수 있는가?

**코린도후서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하라 고 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25]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복지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는 주님의 창고는 [상징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4:17)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자매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자매의 일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방문하여 가르치는 자매와 돈독한 우정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은 힘과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주님의 창고에 드릴 것을 선택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창고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은사들을 받았습니까?”(“Welfare, the Crowning Principle of a Christian Life”, BYU Women’s Conference, 2003년 5월 1일, 3)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897~1988),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 자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진 것을 후하게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복지를 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헌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가진 것을 후하게 내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원할 경우 정직한 심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거니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금식의 축복”, 성도의 벗, 1982년 12월호, 4쪽) ■

#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침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기억하게 하는 질문,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 및 느낌을  
알아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구세주처럼 되라는  
그분의 이 권유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의 책임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훈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방법에서도 더 나은 교사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질문하신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구세주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질문,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  
및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느낌을 알아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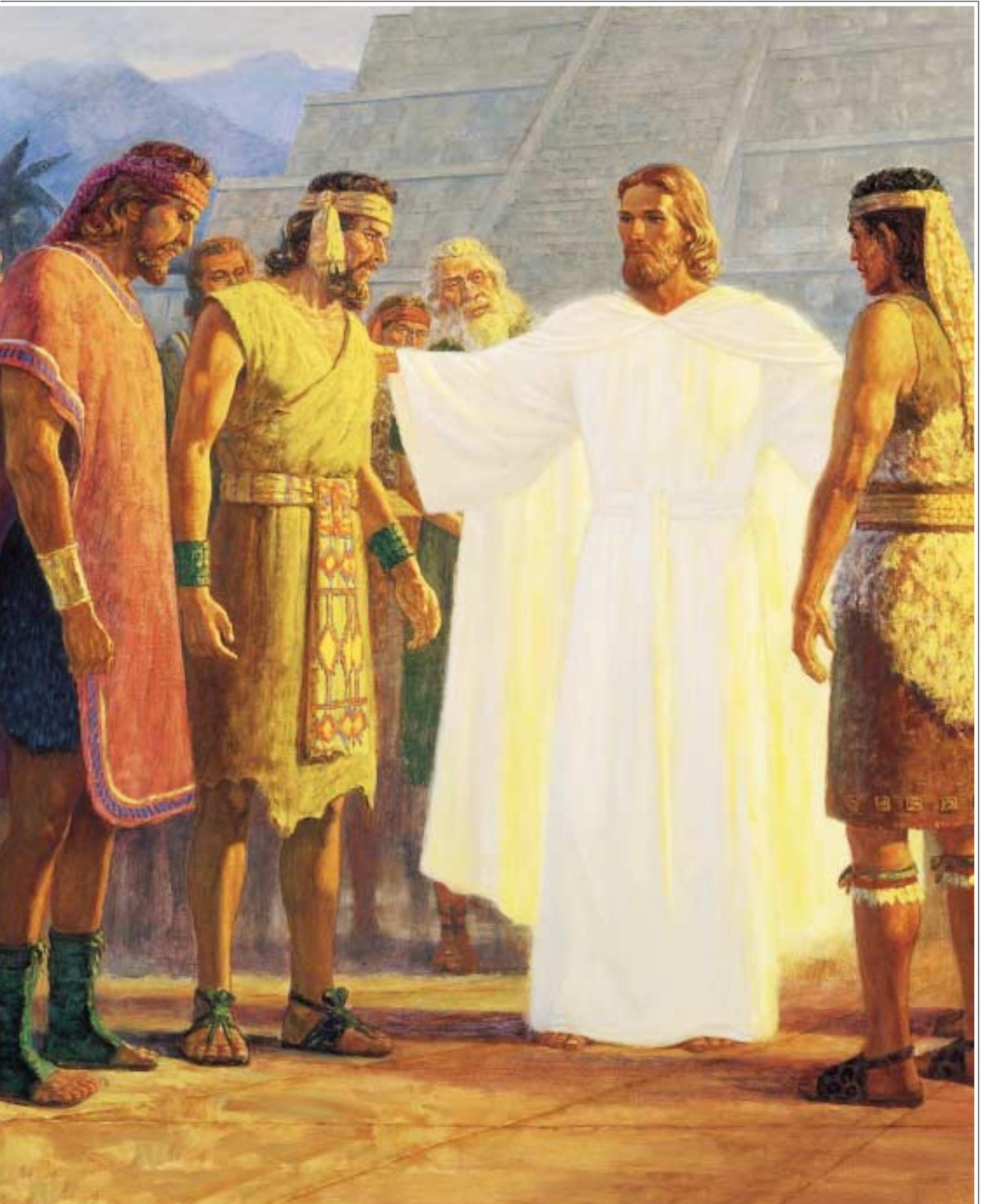
##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한번은 어떤 율법사, 즉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질문을 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누가복음  
10:26)

답은 율법사의 기억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대답하자,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누가복음 10:28)

또다른 경우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마태복음  
12:1)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마태복음 12:3~4)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들은 반원들이 율법의 뜻을 잘 알도록 해 주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새로운 젊은 회원으로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사가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사건들, 이름, 날짜, 장소 등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던 이유는 학교와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반원들에게 공과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던져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질문 방법이기는 했지만, 그분처럼 되려는 나의 행동이나 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분처럼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질문들도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말해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구세주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29, 36)

이 질문은 율법사와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답을 추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우리를 지식을 알아내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게 합니다.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혹은 “그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0:22 참조) 구세주의 가르침에 있는 다음 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태복음 18:12)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마태복음 21:28)

때로는 수사학적 질문, 즉 대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6~47)

제 아내는 선교사들이 한 질문으로 어떻게 삶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상당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오빠가 그녀를 초청하여 선교사들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가르친 후에 그녀가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불러일으킨 생각들은 잠시 후 그녀의 느낌에 감동을 준 방법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으며, 영은 그녀에게 증거하였고, 그리하여 개종의 과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 느낌을 알아보는 질문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생각이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한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셨을 때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더러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말해 보게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선인 사도의 대답을 다음과 같은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3~17)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르칠 수 있는 또다른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구세주께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 다음 그분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11:25~27)

우리는 “사람이 성령(성신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성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니파이서 33:1)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질문은 가르치는 상황에 영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가족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 선교사가 한 질문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가르친 후, 이 선교사는 단순히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토론에 대해 훌륭하고 교훈적인 결론을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 을 믿습니까?” 혹은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 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모든 교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나누었을 때, 항상 그 생각을 존중해야 하며 결코 어떤 형태로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구세주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시는 교사입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6) 또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삼서 27:21)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활동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가르침의 배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은 그들이 진리를 찾도록 인도합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교화시키는 성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됩니다. ■

구세주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시는 교사입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

# 은사와 인도



## 호르헤 엘 델 카스티요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남미 남 지역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외 지역에서는 축구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제가 열 살이나 열한 살 무렵이었을 때, 동네 아이들은 트럭과 버스 왕래가 빈번한 동네 어귀의 공터에서 함께 공을 차며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그 위에 앉아 동네 형들이 공을 차는 것을 구경하는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르헤, 빨리 자리를 옮겨라.” 제 주위를 돌아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공터의 구석을 돌아 건너편 길가의 가장자리로 가서,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일 분도 채 지나기 전에 두 트럭이 교차로에서 충돌을 하여 제가 서 있던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만일 그 곳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저는 그 트럭에 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게 그 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갖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제가 그 축구 시합을 보던 중에 있었던 일처럼, 육체적으로 보호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 몇 미터 더 가는 것과 같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굳건하게 섬

십대 때 저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힘겨웠습니다. 저는 외로웠고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학급 친구들은 비교적 좋았지만, 대다수가 제가 교수하는 원리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제게 담배를 피게 하려고 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 친구가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 앉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 한 모금 빨고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모두 그 담배가 제게로 전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앉은 아이가 한 모금 빨고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 피워 봐.”  
 “싫어, 담배 피지 않을 거야.”

그는 담배를 제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쳤습니다. 그 아이도 맞받아 쳤습니다. 그 순간 교실 내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그 방법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어느 누구도 제게 담배를 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제가 때렸던 아이를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그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야.”

만약 제가 표준을 낮췄더라면, 성신이 제게 머물러 계셨을까요? 아니면 성신의 인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저는 성신이 제 동반자가 되게 했습니다. 성신의 안내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성신의 도움으로

14~15세가 되던 무렵,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아버지를 도와 가업이던 세탁소 일을 했습니다. 그 해 여름에는 그다지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몬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물몬경은 펼치면 모로나이의 약속이 첫 페이지에 나오도록 제본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책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이 대답하실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5) 이전에도 그 약속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순간에 성신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은 후에,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성신을 통해 제가 찾던 간증을 얻었습니다. 발끝부터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까지,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저는 성신이 인도하는 다른 성스러운 경험들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러한 첫 경험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신은 제가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성신은 제가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신은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신은 제가 훌륭한 배우자를 찾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결정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

# 가정의 밤 제언함



가정의 밤에 활용할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월요일 밤을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우** 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오리건 비버턴 스테이크 웨스트 힐 와드에 속한 부부인 매튜 모리스와 주디 모리스도 언제나 가정의 밤 공과 및 활동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가정의 밤 자료집(물품번호 31106 320)에 나오는 내용이 주요 참고 자료가 되지만, 다른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주디 모리스는 자료집을 살펴보다가 제언함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방법이 가정의 밤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았어요.” 모리스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만들어 아이들이 보게 될 선반 위에 놓아두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여섯 살, 여덟 살짜리 두 딸이 적은 쪽지를 보았을 때 제가 느꼈을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매달 발견되는 친구들에 나오는 가정의 밤 제언을 사용하자고 제언했어요. 우리는 시도를 했지요. 그 다음 두 주 동안 개회 찬송, 참조 성구, 이야기, 활동 등이 포함된 짧은 공과를 했어요. 물론 간식을 먹는 것으로 모임을 마쳤죠.”

모리스 가족의 경우에는 제언함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대한 독자들의 아이디어와 간증들을 모은, 여러분을 위한 “제언함”입니다. 이러한 제언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

경전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의 밤 공과 자료입니다.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방부 칼라브리아 레조 지부의 포투나타 만달라리 자매는 휴가를 내어 딸의 가족을 방문했을 때, 가정의 밤 공과를 위해 경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일곱 명이나 되는 가족의 각 구성원들을 위해 종이를 준비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다음 가정의 밤을 위해, 좋아하는 성구와 자신의 생각을 적으세요. 5분을 드리겠어요.’”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탁자에 둘러앉았을 때, 그 곳엔 이미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두 다른 성구를 말했고, 모두가 말할 기회를 가졌어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딸은 자기 가족이 가정의 밤을 위해 여전히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말하고, 귀를 기울여요. 지루할 시간이 없지요.”

### 영감을 위한 기도

현재 워싱턴 시애틀 스테이크 베이션 지부 회원인 수잔 울프는 특별한 가정의 밤을 위한 영감을 받았던 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 태어날 아이의 출산일도 가까웠어요. 두 명의 미취학 아동을 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 태어날 동생을 만날 준비에 관한 주제로 가정의 밤 아이디어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어떤 자료에도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제 소망은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어요.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월요일 밤에 찬송가를 부르고 개회 기도를 한 후에, 저는 아이들 각자에게 종이컵을 나누어 줬어요. 종이컵에다 물을 붓고 물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들이 대답했어요. ‘싱크대에 가서 물통에 물을 채워요. 엄마’

“저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아주 바쁠 거야. 그럼 너희들이랑 놀아 줄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 이유를 알겠니?’

“이번에는 아들과 세 살 난 딸이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 주시겠지.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 필요로 하는 사랑을 갖게 될 거야.’ 제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에 대해 성신이 간증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 스물세 살이 된 제 딸은 아주 오래 전에 가졌던

**가족이 함께 선교사를 위한  
편지를 쓰거나 소포  
꾸러미를 만들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밤 교훈을 그대로 말했어요.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는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제 간증입니다.”

###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유타 바운티폴 중앙 스테이크레이크뷰 와드의 알레사 길버트는 90세일 때도 가족을 가정의 밤에 초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2002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알레사는 이러한 특별한 가정의 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저는 꼭 펜과 연필, 종이, 봉투를 준비합니다. 때로 저는 미리 봉투에 주소를 적어 둡니다. 우리는 가족과 와드에서 나간 선교사들에게 각자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좋아했지요.”

브라질 브라질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니콜라스 디 저머 장로는 가정의 밤 활동에서 쓰여진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알았던 한 가족으로부터 세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





**위: 가족이 복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나눌 때, 가정의 밤은 토론과 복음 공부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교회 잡지마다 실제 기사가 가정의 밤 공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제언이 나옵니다.**

**매** 주마다 가정의 밤을 갖다 보면, 어떤 월요일 저녁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 시간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세 살 난 딸까지도 아빠의 도움을 받아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편지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다른 가족은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종이를 펼치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칼라 매직 펜으로 메시지를 적거나, 멋진 문양을 그리거나, 기타 흥미로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적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따로 한 곳에 프레임 만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종이를 접어 큰 봉투에 넣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선교사들은 이 “돌림 편지”를 벽에다 걸고 여러 주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에 의지함**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나눌 때, 가정의 밤은 토론과 복음 공부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중에 유타 프로보 그랜드뷰 스테이크 그랜드뷰 오 와드의 바트 다네크와 르앤 다네크 가족은 흔치 않은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질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네크 자매가 말했습니다. “걸던 중에 멋진 한 쌍의

연인들을 만났습니다. 바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연인들이 지역 목사에게 의해 곧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없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이 잔잔하고 맑은 바다를 비추는 가운데 결혼식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만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가정의 밤 주제를 영원한 결혼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32편 15절과 19절에 나오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전에 들어가 영원히 인봉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결혼과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라는 언약을 비교하여, 성전 결혼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인봉의 권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성신의 영감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며 얻은 경험은 영원한 결혼에 관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데 강력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해변에서의 결혼식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결혼의 기쁨을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받았습니. 그 결과 매우 훌륭한 가정의 밤이 되었습니다.”

**교회 잡지 사용**

아르헨티나 코모도로리바다비아 스테이크 칼레타 올리비아 와드의 마사 마벨 마티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아호나 어린이란에 나오는 활동들은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 자란 딸인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갖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란을 활용한 후로는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할 때 좋은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 친지들이 방문하면, 그들도 함께 참석하는데,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가정의 밤에 대해 열성적이었습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은 모든 교회 잡지에 나옵니다. *리아호나*의 경우 1쪽, *Ensign*의 경우 “Making the Most of This Issue”, *New Era*의 경우 “What’s in It for You”, *Friend*의 경우 “Guide to the Friend”에 각각 나옵니다. 가정의 밤은 또한 교회 잡지의 주제 색인에 나오는 주제를 정하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 잡지의 기사에 나옵니다. 이야기나 기사를 함께 읽고 특별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 꾸준하라

매주마다 가정의 밤을 갖다 보면, 어떤 월요일 저녁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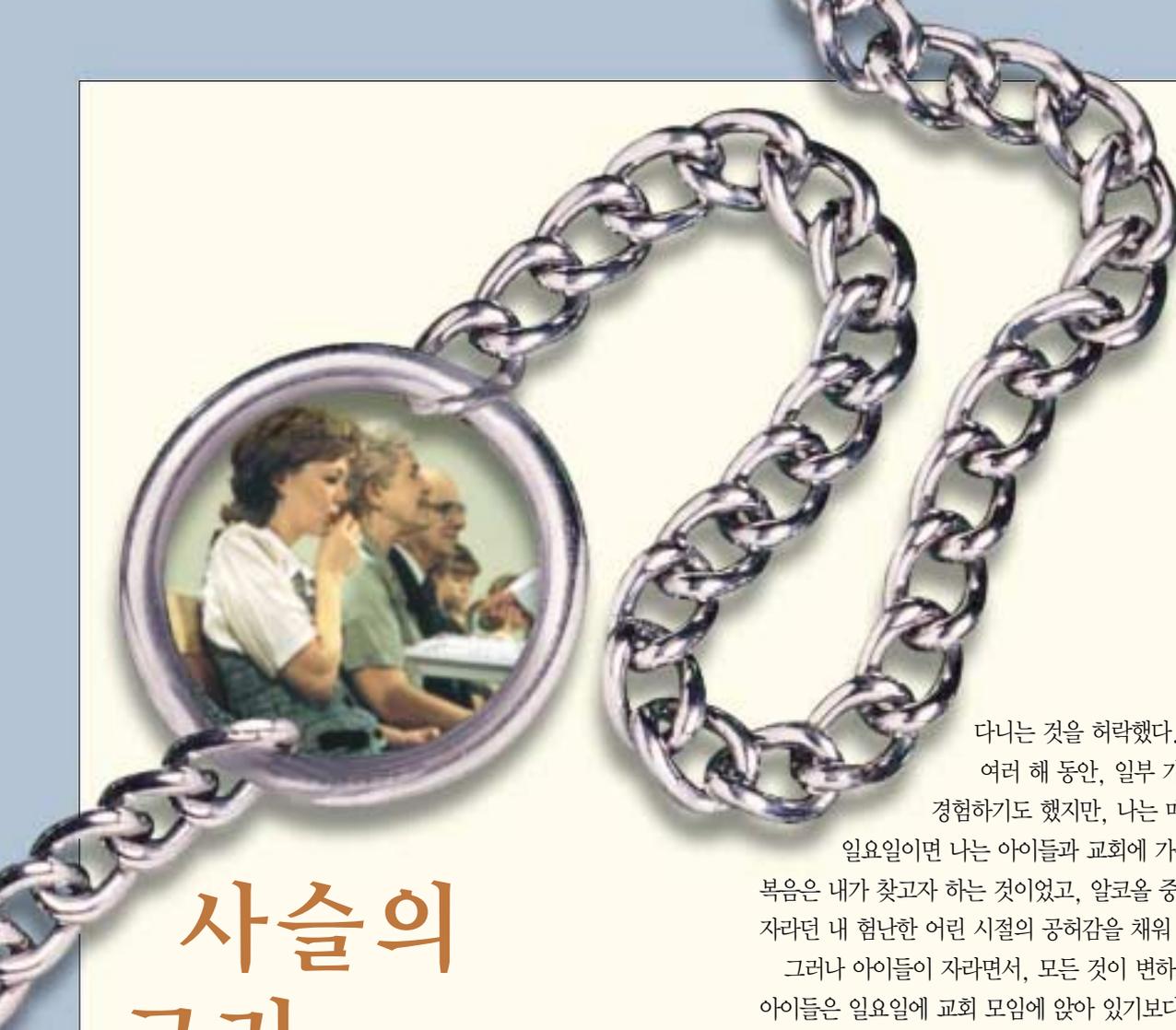
한 젊은 여성은 매주마다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힘에 관해 간증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가정의 밤을 꼭 집어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가족이 함께 가정의 밤을 갖는 그 자체가 제 간증을 강화시켰고 제가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언제나 월요일이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했고, 발야구도 하고, 가족 평의회도 갖고, 게임도 하고, 개인적인 허물이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면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고자 힘쓰셨습니다.

“열네 살이 되던 때에 저는 교회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가정의 밤이 제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유일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은 참되며 제가 행한 어떤 행위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 저는 구세주를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회개를 통해 교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실이 계속해서 가정의 밤을 갖겠다는 아버지의 결심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저는 그것에 반대했었지만, 그것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제 남편과 저는 정규적인 가정의 밤을 통해 구세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제 자녀들에게 심어 주길 희망합니다.”





# 사슬의 고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상했으며 교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에바 프라이

**19** 70년에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다.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흥차나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끊은 것이다.

내 개종은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시누이가 내가 교회 잡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후에 물문경을 읽었고, 그 책의 진실함을 알게 되었다. 곧이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남편은 가족의 새로운 삶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교회가 가족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편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여러 해 동안, 일부 가족의 반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나는 매우 행복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나는 아이들과 교회에 가는 것을 즐겼다. 복음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었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내 험난한 어린 시절의 공허감을 채워 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앉아 있기보다는 아빠와 함께 보트 타러 가기를 원했다. 어느 순간 나 혼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상했다. 나는 교회에 가서 홀로 앉아 올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마침내 나는 스테이크장님에게 가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만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그 분은 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인지 여쭙어 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집에 가서 그 권고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응답을 받았다. 내 마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느껴졌다. “너는 사슬의 고리니라. 네가 그 고리를 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 활동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수줍어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의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나는 내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번에는 우리 워드 가족과 보다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혼자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내 두려움은 사라졌고, 워드에서 많은 친구를 찾게 되었다.

충실하게 교회에 다닌 결과 보상이 찾아왔다. 자녀들이 하나씩 교회로 돌아와, 지금은 모두 활동적이다. 현재 그들은 복음

##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지키십시오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작고 넓은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나무를 뽑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슬 한쪽을 트랙터에 묶고 다른 한쪽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무가 약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사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끊어진 고리를 보며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나는 철물점에 가서 대체할 고리를 샀습니다. 새로 산 고리를 연결했지만, 연결은 아주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사슬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한 세대의 사슬에서 결코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뒤를 이어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아무런 흠 없는 몸과 뇌와 더 나아가 신앙과 흠 없는 덕성이 유전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청남, 청녀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은 결혼하여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는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교회에서 영원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는 세대들의 큰 사슬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Keep the Chain Unbroken”, 1999~2000년 브리검 영 대학교 말씀(2000년), 108~109쪽.

가운데에서 9명의 손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모두가 의롭게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와 동생도 또한 교회에 개종했다. 동생의 남편은 현재 감독이며, 동생의 두 아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했다. 내 아들도 선교사로 봉사했고, 현재 한 손자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매우 가까우며, 남편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 모로 많이 발전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족이 경험한 축복과 행복과 기쁨에 관해 매일 감사를 드린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 “네가 사슬의 고리이니라”는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였던 것에 감사 드린다. ■

에바 프라이는 캘리포니아 에스콘도 스테이크 밸리 센터 제1 와드의 회원이다.



원곡: 모렐 사진 촬영; 스티브 번디스, 복사; 금자; 오튼족; 모렐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지

#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둬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의 성도들은 많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마리나 미하일로프스카야와 벤자민 게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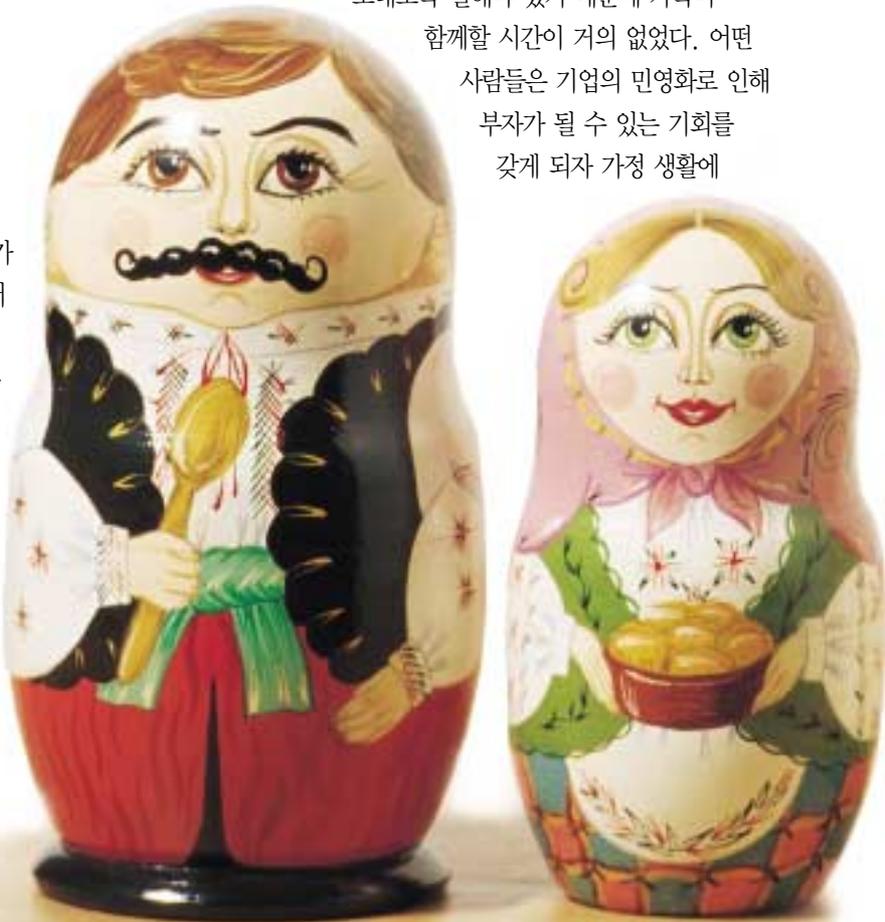
**19** 91년 8월 19일 아침에, 우크라이나의  
가족들은 잠에서 깨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70년간 자신들을 통치했던 정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한 순간에 삶이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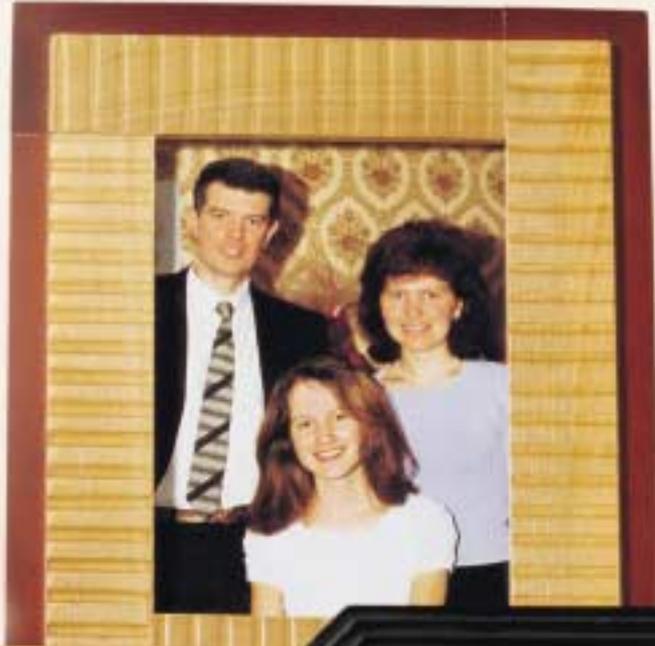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의 드미트리 미쿨린은 그 날 아침과  
그 후의 혼란스럽던 날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린  
한 나라 안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큰 축복으로  
여겼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1991년 9월 12일에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된 복음의  
선포를 위해 헌납했다. 일년 후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리코프로 왔다.  
1993년 1월에는 도시의 알렉세이예프카 주거 지역에  
지부가 세워졌다.

헌납 기도에서 팩커 사도는 이렇게 간구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음식과 의복과 주거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구하나다.” 이러한 생필품을 얻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대다수 시민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일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자 가정 생활에





체르브야코프(왼쪽),  
미쿨린(왼쪽),  
엠초프(아래쪽)  
가족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이  
우선이 되도록 돕고  
있다.





불충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혼외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부부들이 한 자녀를 갖거나 자녀 없이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 웨일인지, 우크라이나의 많은 시민들에게 가족은 중요성을 잃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리코프의 말일성도들은 교회가 가족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었다고 말한다. 최근에 하리코프에서 모스크바로 이사한 귀환 선교사이자 현재 모스크바 남 선교부 부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드미트리는 이러한 용감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2000년 4월에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부모님에게 인봉되었고, 2003년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자신의 아내인 빅토리아와 인봉되었다.

“회복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의 영생을 위한 희망과 강한 기초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중요했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우선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확신과 보호의 느낌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미트리의 부친인 세르게이는 현재 하리코프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교회는 가족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가족들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은 영원한 원리들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한복음 17:11~14 참조) “가족 우선”의 태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 생활에서 행복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알렉세이에프카의 성도들에게 가족과 영원한 목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배어 있다.

### 거룩한 곳에 서라

비탈리 엠초프는 1988년에 베를린 장벽의 동독 쪽에서 소련 군인으로 복무했다. “저는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살면서, 가정이 외국 정부 하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군인들은 흔히 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 경험을 한 후, 저는 제가 본 것보다, 심지어 제가 자라 온 가족보다 더 나은 가족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비탈리 엠초프와 어릴 적 친구는 자신들이 느끼는 영적 공허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진리를 찾는 일에 헌신했다. 그들은 교회가 하리코프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회복된 복음을 곧바로 받아들였다. “선교사를 만났을 때, 저는 마침내 제 가족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해서 엠초프 형제와 그의 아내 루드밀라가, 가족을 위협하는 삶의 곤경과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18개월 후에 그 부부는 보수는 좋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는 직장을 그만 두었다. 부부는 비교될 만한 봉급을 주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그렇지만 일상 생활은 흔히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곤 한다. 엠초프 형제는 일주일에 육일, 하루 일곱 시간을 차를 도장하고 수리하는 일을 한다. 엠초프 자매는 최근까지 창고 관리인으로 일했다. 현재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비탈리는 지부장과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루드밀라는 지방부 청녀회장이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사람들처럼, 엠초프 가족도 교묘하게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영향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엠초프 형제는 흔히 직장에서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직원으로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놀랍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때문에 저를 존중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흡연도 특히 청소년 사이에 것처럼 만연해 있다. 외설적인 영상들이 광고에 나타나며 어느 길거리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엠초프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곳에서나 유혹이 넘쳐 납니다. 사탄은 이곳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못지 않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은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와 가족의 행복을 매일 일깨워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엠초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7:8) “우리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집이 우리 자신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 중요한 것을 선택함

만약 원했다면, 알렉산드르 체르브야코프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9년 전에 그는 자신의 식품 기술 회사를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역과 심지어 러시아에서 고객들이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 왔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끊임없이 일하고 돈은 넘쳐 나지만 사랑하는 영원한 가족의 축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체르브야코프는 인정한다.

다행히도,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와 아내 루드밀라와 딸 이나는 1995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그는 지부장으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지부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체르브야코프 가족은 1997년 8월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알렉산드르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순위를 지키도록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의 밤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월요일 밤은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족에게 집중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는 자신들이 갖는 가정의 밤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경전을 읽거나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가족에게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토론합니다. 당면한 문제는 이나가 내년에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많이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인생에서의 숨겨진 큰 비밀이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 진리를 나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믿습니다. 강한 가족이 없다면 강한 사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하나로 단합된

강한 가족이 없다면 강한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곳에서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들로 하여금 훌륭하고 건전한 가족 생활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준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sup>1</sup>

불행하게도, 많은 가족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이 주는 큰 희망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족의 행복으로 이끄는 영원한 원리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회원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것을 보게 된다. 회원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서 근면함으로 인해 회원들이 경험하는 평안을 나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면,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서 미덕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에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가족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sup>2</sup> 바로 그 메시지가 하리코프의 성도들이 받아들인 메시지이다. ■

*마리나 미하일로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지방부 알렉세이에프카 지부의 회원이다. 벤자민 게인즈는 메사추세츠 캠브리지 스테이크 벨몬트 제1와드의 회원이다.*

주

1. 1997년 11월, 엘 파스, 이그나시오 카리온과의 인터뷰에서,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가정의 밤”에서 인용함, 5쪽.
2.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5쪽 인용.



알렉세이에프카 지부

## 보이지 않는 우리의 천사들

매리 바트쉬

2 주일 동안 오른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이것이 단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일곱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그 중 다섯 아이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때로는 삶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의 일과는 의사와의 약속, 치료,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약물 투약, 그리고 발작,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및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도와 주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가득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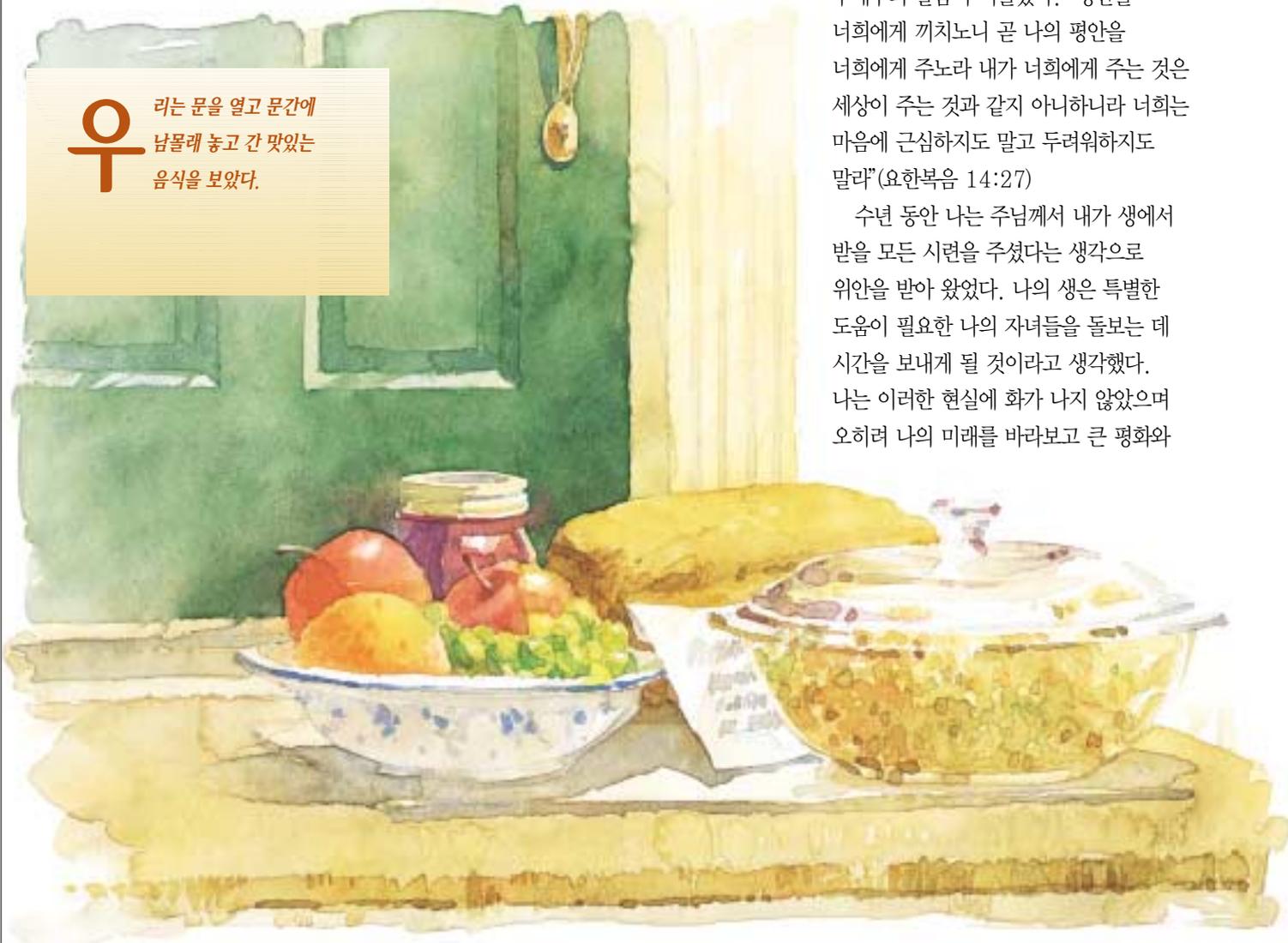
남편 론은 최근에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남편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고 매일 그가 우리 와드 회원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도록

기도했다. 나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드디어 나는 더 이상 손떨림을 방지할 수가 없어 의술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 날 병원 문을 나오면서 나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다.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이었다. 의문과 공포가 마음에 밀려들었다. 병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새로 부름 받은 남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갈망하였고, 평안과 위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구세주의 말씀이 떠올랐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수년 동안 나는 주님께서 내가 생에서 받을 모든 시련을 주셨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아 왔었다. 나의 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나의 자녀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현실에 화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큰 평화와

우리는 문을 열고 문간에  
남몰래 놓고 간 맛있는  
음식을 보았다.



# 기도할 용기

달네이 데 아순사웅 데 카스트로

**19** 87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 해는 내가 18세가 되어 브라질 공군에 입대할 수 있는 해였다. 그 해가 되었을 때 나는 공군에 들어가 내 조국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며 헌신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목표를 준 뒤, 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많은 시도에 따른 좌절과 다소간의 실망을 겪은 후, 침대에서 경전을 읽고 있던 나는 어떤 군인이 무릎을 꿇고 경건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의 대답은 한 줄기의 햇빛과 같았다. 그는 내가 식사 때나 잠자기 전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 왔다고 말했다. 그도 언제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고 했다. 어떻게 기도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드디어 그는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는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 날 밤, 나는 여섯 가지 선교사 토론의 핵심을 가르치고 나서 나의 간증을 전했다. 영은 그것이 모두 참됨을 우리 둘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었다.

여러 주가 지난 뒤, 그는 교회에 가자는

나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는 선교사로부터 복음 토론 내용을 듣고 와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 시간에 기도를 한 후, 그는 나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침례 받기로 결심했어.” 그의 말은 나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놀랐지만 무척 기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내게 침례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나는 그를 얼싸안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고맙네, 내 친구여.”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선교사 지원서를 보냈고 그는 사실상 나보다 앞서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끝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지상 생활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묶어 줄 강한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 그는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아름다운 가족을 갖고 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라고 목표를 주신 영감에 찬 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 ■

달네이 데 아순사웅 데 카스트로는 브라질 사용 호세 스테이크 산타 클라라 지부의 회원이다.

기쁨을 느꼈다. 우리는 아름다운 두 딸의 양육과 더불어 우리 두 아들들의 장애와 도전도 받아들였었다. 우리는 오히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세 명의 어린이를 입양하여 가족을 늘려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졌다. 우리는 입양 수속의 각 과정을 통해 인도를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 거기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지만 엄청난 축복도 함께 있었다.

진단 결과가 있는 지 수주일 후, 나는 나도 모르게 종종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다. 나는 파킨슨 병이 점점 악화되는 병이며, 계속해서 근육의 통제력을 잃게 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에 대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나는 여러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또한 나는 진단서의 첫 글귀에서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서 물러갈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경험에서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너무나 외로웠으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론이 상호 향상 모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 보니, 현관 앞에 이름도 알리지 않고 놓고 간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매주 이 날 저녁에 식사가 배달될 것이라고 적힌 예쁜 쪽지도 있었다. 이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을 때, 나의 육체는 물론 나의 영혼도 살찌워졌다. 나는 혼자자 아니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미로운 평안을 다시 맛보았다. 나는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모사이야서 18:9)라는 침례

성약을 지킨, 이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 감사했다. 나는 이러한 “지상의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내가 매일의 삶을 헤쳐 나갈 힘을 얻을 것임을 알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받은 이래 이제 3년이 지났다. 매주 상호 향상 모임의 밤이 있는 저녁에 우리는 언제나 아무도 모르게 문간에 놓고 가는 훌륭한 음식을 받아 오고 있다. 워드 경계가 변경되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식사는 계속되고 있다. 종종 나는 특별히 힘든 날과 투쟁하느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날”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 때 초인종이 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맛있는 사랑의 선물을 발견한다.

나의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서 아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오는 평안을 느껴 오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시련을 혼자서 이겨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나 종종 그 응답은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자들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 ■

매리 바트쉬는 에리조나 투슨 노스 스테이크 콘터넬탈 랜치 워드의 회원이다.

## 아가보는 어때요?

에릭 헨더샷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읽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글라우디오 가이사 시대에 겪게 될 흉년에 대해 예언한 아가보라는 예언자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 구절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틀 뒤, 구역 책임자인 갤러멘트 장로가 전화를 걸어 다음날 동반자를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동반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사우샘프턴으로 가서 갤러멘트 장로와 그의 동반자, 랭스턴 장로를 만났다. 나는 다른 두 장로들이 윈체스터로 차를 몰고 돌아가고 있는 동안 랭스턴 장로와 함께 가가호호를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점심 직전에 어떤 집을 두드리기까지 우리의 아침 시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문을 열어 준 사람은 그 집을 방문한 이웃집 여자였다.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인이 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의 거실에 있음을 곧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했다 때 거실에 있던 그 여인은 자신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며 “물론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알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내가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 그녀는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는 예언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예언자예요.”라고 외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아가보는 어떤가?”

나는 즉시 외쳤다. “아가보는 어때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했다. “아가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후에 살았고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예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어디에서 읽었어요? 당신네 물문경에서요?”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보여 줘요.”라는 의심에 찬 목소리가 들려 왔다. 이웃 사람은 우리를 들어오게 했고 랭스턴 장로와 나는 작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거기에는 40대의 한 여인이 쇼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구절을 찾아 그녀에게 보여 주었다. 그 구절을 읽고 난 후,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했다. 나는 그 당시에 지상에 계셨던 살아 계신 예언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대관장에 관해 말해 주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서도 간증했다. 영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으므로 나는 그녀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랭스턴 장로와 나는 물문경 두 권을 남겨 두고 나왔다. 하나는 이 여인을 위해, 하나는 이웃집 여인을 위해서였다. 나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여인이 침례 받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왜

아가보가 기억났겠는가?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나는 갬러펜트 장로와 랭스턴 장로에게 달려가 물었다. “그 집에 다시 가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해 봐요!”

그들은 첫번째 토론을 위해 그 집에 갔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주었던 물문경도 돌려주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교회에 앉아서 왜 내가 그와 같은 놀라운 영의 속삭임을 받았으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극도로 실망했지만 더 이상 이를 마음에 담아 두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다음 일요일 내가 교회 복도로 걸어

나가고 있을 때 랭스턴 장로가 활짝 웃으며 내게로 달려왔다.

“우리가 물문경을 주었던 그 여인 기억하지?”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랭스턴 장로는 우리가 놓고 간 두 권의 물문경, 즉 하나는 그 여인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웃집 여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내게 상기시켰다. 그런데 이웃집 여인이 물문경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을 어머니 몰래 그 집 딸이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

결국 그 여인은 딸과 함께 선교사 복음 토론을 듣게 되었고 둘 다 침례를 받게

되었다.

30년도 더 지난 그 때를 되돌아보며 내게 떠올랐던 그 질문 “아가보는 어때요?”를 회상할 때 나는 또 하나의 성구가 생각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나는 선교사로서 영이 나에게 아가보의 중요성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성신은 그 날 진실로 나의 스승이었다. ■

에릭 헨터샷은 세인트 조지 유타 그린 밸리 스테이크 그린 밸리 제1와드의 회원이다.

**“보**여 줘요”라는 의심에 찬 목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경전을 펼쳤다.

그녀는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

클라우디아 올란다 오르티스 에레라

**나**의 부모님은 1978년 8월 18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 때 나는 다섯 살이었고 나의 동생 노엘리아는 겨우 5개월이었으며, 남동생 루이스는 11년 후에 태어났다. 우리는 1988년 6월에 과테말라시에 있는 과테말라 성전에서 인봉 받았다. 나는 지금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기억한다. 흰옷을 입은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하나로 결속되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단합된 활동적인 가족이었으며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승영을 성취하겠다는 열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역경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1999년 1월 아버지가 심한 사고를 당하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뇌가 부어오름으로 생기는 혈창이었다.

나머지 가족이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사로서 나는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았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후유증이나 앞으로 받을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곧 회복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언제나 그랬듯이 훌륭한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렸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더 강해짐을 느꼈으며 나는 아버지가 눈을 뜨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 시련의 시기에 영감에 찬 우리 감독님의 방문은 큰 힘이 되었다. 감독님은 아버지께 신권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길 기다렸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차도가 없었으므로



**감**독님은 우리에게 “**비극이나, 운명이나**”라는 대관장님 말씀의 사본을 주시며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여주어 보라고 권유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축복을 마친 감독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해 말해 주었고 회복을 위해 축복을 받은 자 중,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교리와 성약 42:48 참조) 말했다. 감독님은 또한 우리에게 “비극이나, 운명이나”(Improvement Era, 1966년 3월호, 178~180, 210~217쪽)라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의 말씀 사본을 주셨다. 감독님은 하나님께 그분의 계획에 대해 여주어 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셨다.

감독님과 헤어진 후, 슬프지만 나는 그분의 권고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의 지상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합병증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의 체력이 소진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를 잃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신앙과 희망을 잃을 정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행복의 계획이 지금 내 인생에 주는 의미를 전에는 결코 느껴 보지 못했다. 나는 나의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시야를 넓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보게 해 주었으며, 생명의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의 한계와 지상에서의 이 짧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아버지께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얘기할 시간이 다가왔다. 사고가 난 지 9일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가 지상에서의 삶을 끝낼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필요한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그 날이 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광과 불멸과 영생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확실하다.

클라우디아 올란다 오르티스 에레라는 과테말라시 과테말라 라스 빅토리아스 스테이크 빅토리아 와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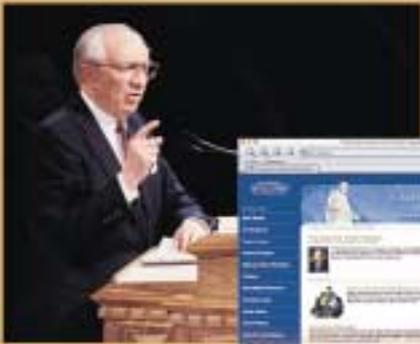
# 알고 계십니까?



## 십 리를 더 감

수개월간의 계획 끝에 잉글랜드 플리머스 스테이크 반스테인플 지부의 청남들은 3일 먼저 그들의 야영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달력을 잘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차를 타고 가는 대신에 그들과 청남 회장은 폭풍우 속에서 야영장까지 105킬로미터를 걸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남들은 차도와 인도와 울퉁불퉁한 다투무어 시골길을 따라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걸어서 한 이 여행이 성공적이었으므로 건강한 하이커들은 몇 달 후에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레드루스에 있는 청남 야영장에서 209킬로미터를 걸어서 6일 후 비테포드에 있는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청남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하이킹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 예언자를 따라라

여러분이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가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가 필요할 때, 그들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www.lds.org**를 방문해서 연차 대회 말씀이나 교회 잡지에

주어진 그분들의 권고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계 지도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9월에 일어난 일

1827년 9월 22일: 요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음

1830년 9월 12일: 엘미나 쉐퍼드 테일러, 초대 청녀 상호 향상회 회장이 뉴욕에서 태어남

1949년 9월 30일: 연차 대회가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됨



1950년 9월 4일: 최초로 세미나리 새벽 반이 조직됨

1976년 9월 27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프로보에서 선교사 훈련원을 위한 최초의 건물을 헌납함

사진 : 반스테인플 지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대회 사진과 엘미나 쉐퍼드 테일러의 사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고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금판을 받는 사진: 옐문 케이 린스던, 신권의 회복에서



**생명의 떡**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배워 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으며 계속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바쉬키나,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

**리아호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리아호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리아호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리아호나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보리스 응코디아, 브라자빌레 콩고 공화국 스테이크 바콩고 와드*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

나는 리아호나 2003년 8월호에 실린 줄리 하우스홀더의 이야기,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가 무척 좋았습니다. 만약 내가 줄리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왜 나예요?”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의 모델이며, 나는 그녀가 용감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 나에게 힘과 방향 감각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기사들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돈나 산체스, 나가 필리핀 스테이크 나가 제1와드*

**나는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매주 교회에 와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많은 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이며, 나의 아내도 감염되었습니다. 병은 매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리 하우스홀더의 기사,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는 내가 몸을 추스리고 새로운 목표를 갖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줄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머리카락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했던 독한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증이 나를 일깨워 주었고 이제는 더욱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목표를 상실했었습니다. 나는 병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회원들의 간증과 우리 지도자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익명*



**가정 복음 교육의 부름과 방문 교육의 경험**

**여**러분은 다른 회원들이 보다 나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되도록 영감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실화를 다른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면 그 내용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Home and Visiting Teaching,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 - liahona - imag@ldsc hurch.org**.

상단 왼쪽: 그림: 시몬 듀이, 최후의 만찬. 유타 아메리칸 포크 알티스 피인 아트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복사 금지

# 친구들



# 보물 지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몬슨 부대관장이 영원한  
보물 지도 세 조각을  
제시하심

**소** 년 시절, 나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즐겨 읽었습니다. 나는 또한 모험 영화를 보았으며, 그 영화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각들을 찾아내어 한데 맞추어야만 보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안내되는 낡은 지도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보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약속된 보상은 상이나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부, 즉 이 지상에서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보물 지도 세 조각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 각자는 개척자 조상으로부터든 나중에 개종한 사람으로부터든, 또는 우리의 삶을 가다듬도록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희생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기초입니다. 그러한 굳건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둘째,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행이 이곳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저 평탄한 고속 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갈림길과 굴곡이 있을 것이며 물론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드려야 합니다.

**셋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오늘의 너무 많은 시간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보냅니다. 과거의 백일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지도가 이제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한 곳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

200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자유 공간  
제가  
하겠습니다

친절

가족 활동에  
참여

감사하다는  
말을

자신의 일을  
기쁘게

니누는 일을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

인내

가족을 꺼안아  
주는 것을

칭찬의 말을

가족과 함께 일

즐거운  
도우미가  
되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미안하다는  
말을

예언자에게  
순종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

좋은 모범이  
되도록

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이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

가정의 밤을  
계획

경전 읽기를

저의 가족을  
강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모님을  
존경

# 제가 하겠습니다

실러 이 월슨

“성공적인 ... 가족은 ...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당신에게 밧줄이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남자가 외쳤습니다. 가족과 낚시 중이던 그 남자의 배의 모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해안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웰턴의 아빠는 그의 배 가까이로 배를 몰았습니다. 웰턴의 형들은 긴 밧줄 한쪽 끝을 그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밧줄이 양쪽 배에 안전하게 묶여졌습니다. 웰턴의 아빠는 천천히 그 남자의 가족과 배를 해안으로 끌어냈습니다.

밧줄을 보면서 웰턴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밧줄이 배를 끌어 당길 만큼 튼튼해요?”

“밧줄을 자세히 보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웰턴은 밧줄의 낱개의 실 여러 가닥이 함께 꼬여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실 가닥이 함께 작용할 때 밧줄은 강해진다-마치 우리 가족처럼 말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웰턴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는 웰턴이 매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명 받은 일을 기쁘게 행하며, 형들과 누나들에게 친절할 때마다 가족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입니까?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 받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까?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정원에서 일할 때든 여행을 할 때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받을 때 여러분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 “제가 하겠습니다” 게임

**준비:** 4쪽을 떼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게임판과 원들을

잘라낸다. 가족에게 맞추어 게임판을 더 만든다. 다른 원에 있는 낱말들을 게임판의 네모칸에 써넣어 빈 네모칸들을 채운다.(각 판의 다른 곳들에 낱말들을 썼는지 확인한다.) 작은 주머니에 원들을 넣어 둔다. 단추나 동전이나 콩 같은 작은 소품들 몇 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의 네모판 중앙(임의대로)에 소품 한 가지를 놓는다.

**놀이 방법:** 주머니에서 원 하나를 꺼내어 읽는다. 만약 게임판에 그 글귀가 있다면 네모를 소품으로 덮는다. 다섯 네모를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 방향으로 한 줄로 덮는 첫번째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친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에게 가족에게 봉사하거나 가정에서 일하며 돕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림들끼리 양끝을 테이프로 붙여 롤러 박스에 넣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2쪽 참조)(상자 앞쪽을 집처럼 보이게 만들어도 좋다.) 가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도록 그림을 맡아 둔다. 노래가 끝날 무렵, 상자 속에서 보이고 있는 그림을 그린 어린이와 다른 두 어린이를 나오게 하여 그들이 집에서 행복한 도우미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기에 보게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알아맞히게 한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한다.

2. 긴 종이 스트립 위에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 가족은 ...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라고 적는다. 이 문장의 각각의 낱말을 잘라낸다.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낱말들을 숨겨 둔다. 어린이들에게 그 낱말들을 찾아 함께 배열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문장을 배열하기 위해 함께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내가 \_\_\_\_\_ 할 때 나의 가족을 강화한다.”라고 적힌 낱말 스트립을 보인다. 짧은 말로 빈칸을 채운다.(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 낙엽들을 쓸어 모은다. 야기를 본다, 친절한 말을 한다, 내 방을 치운다 등등) 그런 후, 낱말 스트립을 한 어린이에게 건네주고 여러분이 말한 모든 내용을 반복하게 한 다음, 자신들의 제언을 보충하게 한다. 그런 뒤, 다음 사람에게 낱말 스트립을 건네주게 하고 지금껏 말한 내용을 반복하고 더 보충하면서 계속한다. ●

# 물고기 통

“성령[성신] …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젠스 크리스토퍼슨  
실화

**덴** 마크에서 성장하던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늘 하던 똑같은 놀이가 싫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고 흥미있는 일을 생각해 내려고 했습니다.

“항구에 가자. 배들도 보고 어부도 볼 수 있을 거야.”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제안에 찬성하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확실히 그 곳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씻고 있었고, 그 밖의 어부들은 생선을 깨끗이 손질하여  
팔았습니다. 생선들은 다 팔릴 때까지 산 채로 보존하기 위해  
물고기 통 즉 물이 들어오거나 빠지는 작은 구멍이 있는, 떠  
있는 통 속에 두었습니다. 그 통들은 배들 사이에서 흔들리며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서로 부딪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는 싫증이 났습니다.

“술래잡기 놀이 하자”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소년이 내키지 않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엉큼한 웃음을 흘리며 “저쪽에서” 하며 어항 통을

가리켰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통들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하는 술래잡기 놀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상자들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발을 헛디더 침병 하고 나가떨어졌습니다. 바닷물을  
내뺄으며 나는 통 하나로 다시 올라가 다른 통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 내 발이 통을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내 발에 입질을 했고, 나는 간지러워  
갈갈대고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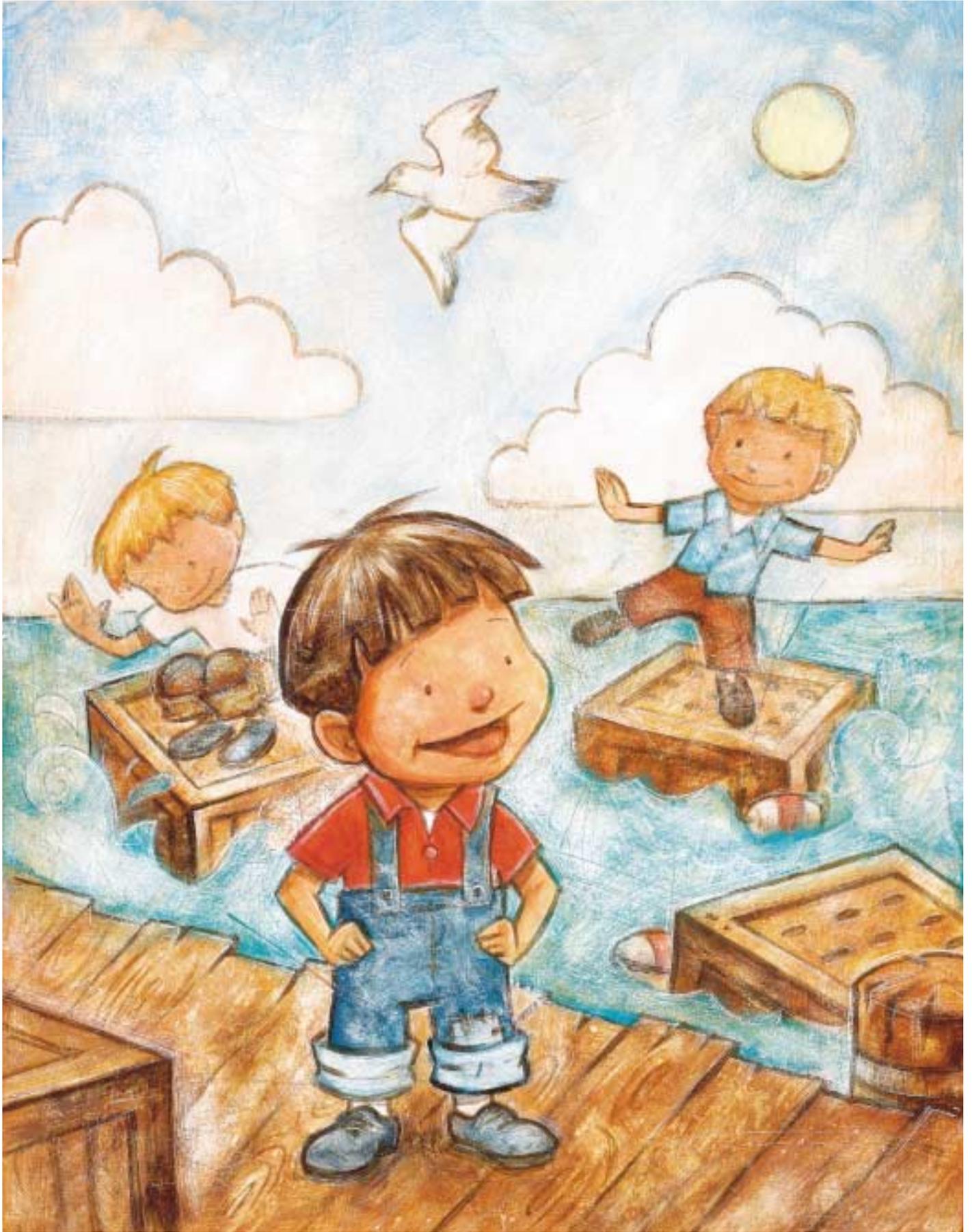
“야, 너희들!”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성난 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물고기  
통들을 깨뜨리기 전에 어서 가거라.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너희 부모에게 말할 거야.”

우리는 해변으로 기어 나와 젖은 양말을 벗어 자전거  
손잡이에 묶고는 떠났습니다. 웃은 집으로 가는 사이에 바람에  
말랐습니다.

하지만 웃은 말랐을지라도 생선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그 냄새를  
알아차리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항구에 갔었어요. 물고기 통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미끄러져 물 속에 빠졌어요.”라고 시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젠스야,





“기억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온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Remembrance and Gratitude”, *Ensign*, 1989년 11월호, 12쪽.

다시는 거기 가서 놀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봐! 네가 다치거나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어.”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젠스야, 그러면 엄마는 너무나 슬플거야. 네가 없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니? 다시는 거기 가서 놀지 않겠다고 약속해.” 나는 어머니에게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친구들이 찾아와 항구에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지난 번의 재미를 떠올리며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한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네가 슬래야!” 한 친구가 나를 치고는 출렁이는 물고기 통 위로 뛰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막 따라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머금은 어머니의 얼굴이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약속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나 지금 집에 가야 해.” 나는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뭐야?” 친구 한 명이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 막 여기에 왔잖아.”

“집에 가야겠어.”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반복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불평을 하며 내가 머물도록 구슬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한 명씩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조용히 자전거를 치우고 내 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에 간 것이 몹시도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내 방으로 오셨습니다. “젠스야,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나 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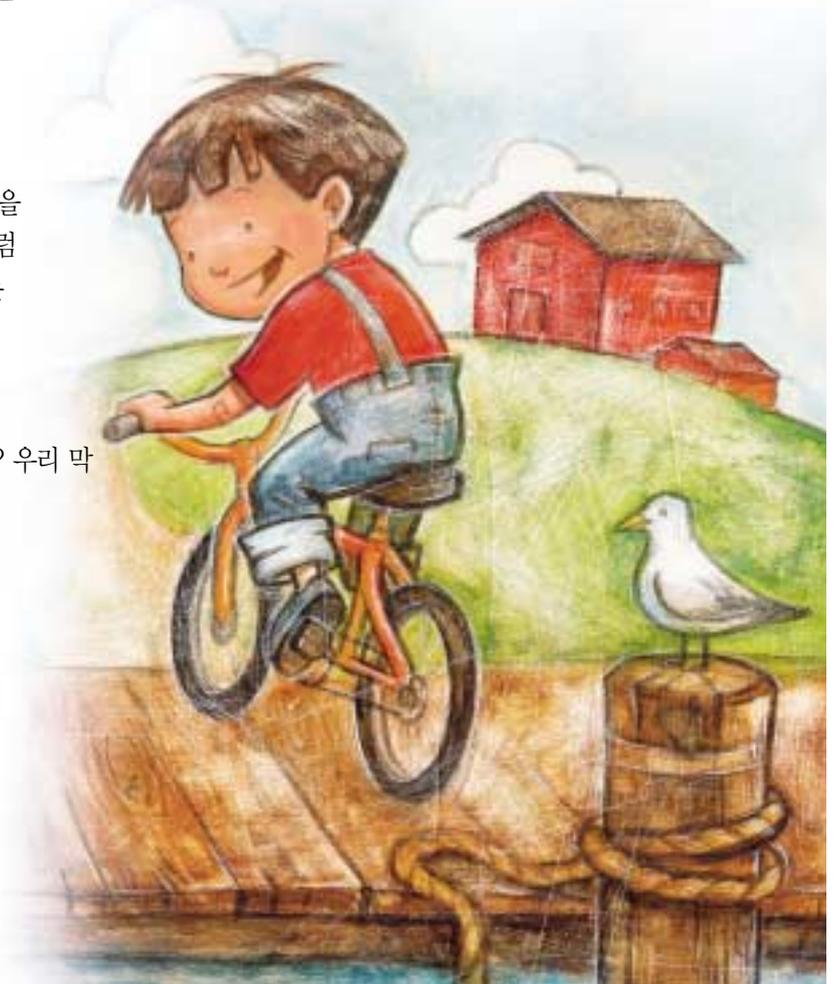
무슨 일이야?”

고개를 떨구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항구에 갔어요. 어머니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거기 가자마자 약속한 것이 기억나서 곧장 집으로 왔어요. 친구들도 왔고요. 어머니, 잊어버려서 죄송해요!”

내가 고개를 들고 보니 어머니는 환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젠스야, 나는 네가 기억을 했다는 것이 너무 기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친구들에게도 모범이 되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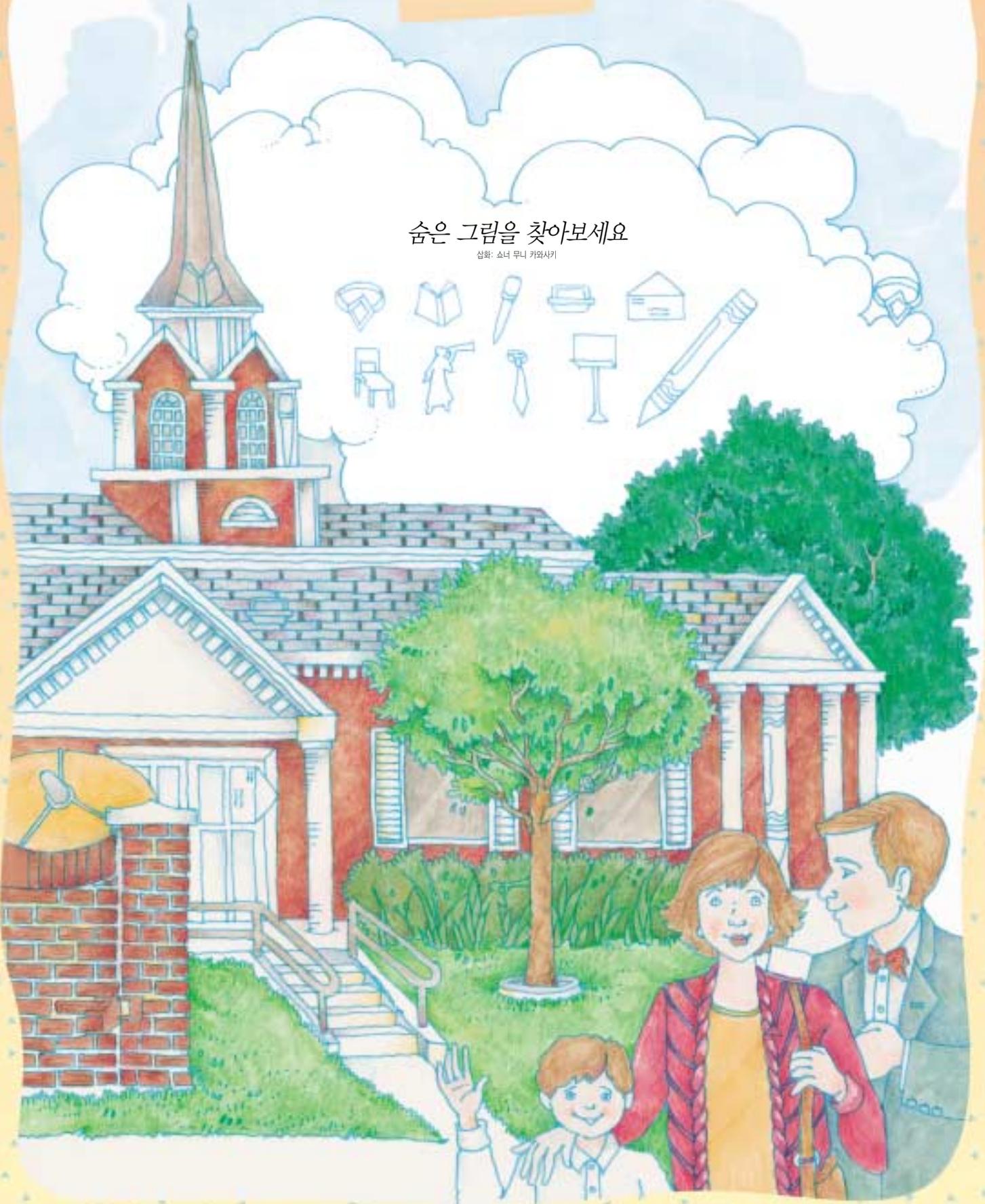
잠시 후, 어머니는 우유 한 잔과 갓 구운 케이크 한 조각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케이크를 잘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대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게 한 그 따뜻한 기억에 대해 더욱 감사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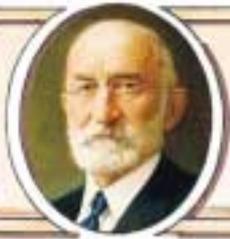
젠스 크리스토퍼슨은 오후스 덴마크 스테이크 호스즈 지부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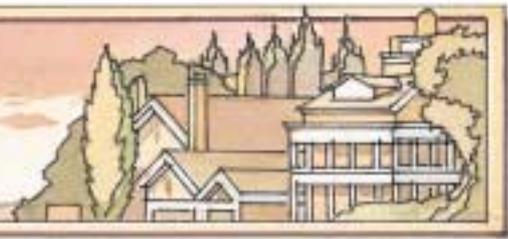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삽화: 소녀 무니 카와사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봉사하라는 부름**



젊은 시절, 히버 제이 그랜트는 심한 병을 앓았다. 그는 죽을까 봐 두려웠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나도록 해 주신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 끝까지라도 기꺼이 갈 것을 약속하나이다.

형제님은 일본에서의 첫번째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형제님의 임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가지겠습니까?

예, 스노우 대관장님.

히버는 회복되었고, 1901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히버와 그의 동반자는 먼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들은 신문과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좋은 인상을 주었고 결국 복음을 전파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히버는 2년 동안 일본에서 봉사했지만 침례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일본어도 잘 배우지 못했다. 어느 날 낙담한 그는 기도하러 숲속으로 갔다.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일본에서의 제 선교 임무를 끝내고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흘 뒤, 히버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유타의 집으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랜트 장로,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님의 다음 부름은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곳을 떠난 이민자가 미국 어느 곳보다 유타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 히버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오스카 왕을 만났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5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하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기타 많은 복음 원리들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교회 대관장들(1979년도 교회 교육 기구 학생 교재)에 있는 내용 인용

# 나의 집에 사랑이

“성공적인 ... 가족은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여**러분은 함께 배우고 놀고 봉사하고 일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84년까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일과 봉사를 통해 지속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때 가정은 일에 의해 강화됩니다.”(“A Safe Place for Marriages and Families”, *Ensign*, 1981년 11월호, 84쪽)

가정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재능이나 취미를 나누며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통해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노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가정의 밤 시간을 이용하여 복음 원리들을 공부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가족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가족은 일과 오락을 통해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매주 오락, 일의 계획, 연극, 피아노 주위에서 노래 부르기, 게임, 특별 다과 및 가족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 이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은 사랑, 자부심, 전통, 힘 그리고 충성심으로 함께 결합됩니다.”(“Fundamentals of Enduring Family Relationships”, *Ensign*, 1982년 11월호, 60쪽) ●

## 가정의 밤 활동 및 제언

1. 13쪽을 두꺼운 종이 위에 붙인다. 점선을 따라 집을 잘라 낸 다음, 점선을 따라 집을 여러 조각으로 오려 낸다. 조각들을 섞고, 집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둔다.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을 때마다 그림 속의 사람이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2. 가정의 밤 활동을 위해 집과 가족에 관한 노래와 찬송가를 부른다. 다음 활동을 위해 노래와 찬송가에서 반복되는 낱말들을 고른다. 예를 들어 **돕는다**라는 낱말을 노래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낱말을 노래할 때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집**이란 낱말을 노래할 때마다 퍼즐에 다른 조각을 추가한다. 퍼즐을 끝낼 때까지 계속 노래한다. 그런 다음, 차례로 가족을 돕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눈다.

3.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학교 말씀을 위해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가족에게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주:** 만약 잡지에 있는 쪽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다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언어를 선택한다.



샤-레이는 춤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그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훌라를  
연습합니다.



# 하와이, 이와 비치의 샤-레이 카마우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만**은 어린이들이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와이 이와 비치의 여덟 살 된 샤-레이 카마우는 춤추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름 방학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에서 12시간씩 춤 연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샤-레이 가족 출신이라면 당연히 무용수가 될 것입니다. 샤-레이는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그리고 그녀의 증조모, 고조모, 그리고 그 윗대의 조모처럼 하와이의 전통 무용인 훌라를 공연합니다. 여섯 세대가 훌라舞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훌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일성도 훌라舞者들 중 한 명의 후손인 아이올라니 루아힌입니다.

샤-레이의 조부모인 하워드 아이와 올라나 아이는 자신들의 훌라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인 호워드의 소년 팀은

9년을 내리 국제 훌라 트로피의 일등을 차지해 왔습니다. 할머니인 올라나는 춤과 함께 원리들, 즉 기도로 연습 시작하기, 항상 단정하게 옷 입기, 부모 공경하기와 같은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녀와 그녀의 학생들에게 있어 훌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샤-레이와 열 살짜리 오빠인 차즈는



가족의 악기 수집은 샤-레이가 그녀의 조부모, 부모 및 오빠 차즈와 나누는 하와이 문화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조부모님에게서 훌라 강습을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온 가족의 애완견인 진저와 놀입니다. 그들은 하와이 악기 수집의 찬미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선반에서 두세 가지 악기를 꺼내 오시면 그들은 모두 즉석 콘서트를 엽니다. 어떤 때에는 피아노 주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따라 그들도 함께 노래합니다. 그것은 샤-레이네 가족이 음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그들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와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발성 교습과 우쿨레레 강습 외에도 샤-레이와 샤즈네 부모는 히컴 공항 기지에 있는 학교에서 하와이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샤-레이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으며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인 릴리오칼라니 역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음을 즐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중요해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훌륭한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해요.”라고 샤-레이는 말합니다.

샤-레이는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전체, 즉 샤-레이 엘리자베스 카나이오카노에 카이어와우 누아누 린세이 카마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이름에 하와이말을 넣은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태어난 때와 살았던 곳을 그녀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누아누의 아름다운 안개 비”란 뜻입니다. 샤-레이의 가족은 13개의 민족, 즉 하와이인, 사모아인, 통가인, 미국 인디언, 스페인인, 스코틀랜드인, 네덜란드인, 아일랜드인, 웨일스인, 벨기에인, 영국인, 덴마크인 및 중국인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카마우라면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는 것이 특별히 신이 날 것입니다.

샤-레이는 또한 가정의 밤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는 단지 가정의 밤이 아니라 가정의 삶을 가지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들에게 성전에서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 얘기하셔요. 나는 ‘나도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라고 샤-레이는 말합니다. 찰즈도 성전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열두 살에 시작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열아홉 살이 되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교회 모임에서 노래하며, 복음과 성전과 조상들과 역사, 관습 및 가치있는 전통에 대해 배우며 함께 훌라 춤을 추며 즐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할머니인 올라니는 춤 이상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원리와 표준들도 가르칩니다. 샤-레이와 찰즈는 진저 개와 노는 것을 즐깁니다. 샤-레이는 훌라 춤을 추는 여섯 번째 세대입니다.